

동구문화총서17호

신내골이 품은
자연마을

대전동구문화원

발간사	4
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대전 동구 역사 개요	6
대성동	8
대별동	32
이사동	58
소호동	93
장척동	117
낭월동	136
구도동	156
삼괴동	167
상소동	193
하소동	211





『산내골 자연마을』을 발간하면서

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도농복합지역인 산내골은 원도심 동구의 진한 문화가 깊게 서려있는 곳이며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가 많이 있는 곳으로 점점 도시화 되어가면서 그 모습이 개발이라는 명목하게 소멸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기록화작업으로 그 역사를 남겨두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산내골은 대성동, 대별동, 낭월동, 구도동 을 제외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만인산과 식장산이 산내골의 병풍역할을 하는 곳이며, 상소동 오토캠핑장과 삼림욕장 만인산은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는 지역이다.

산내 골에는 푸른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제2노인병원, 산내종합복지관, 대단위 물류단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산내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골령골은 아픈역사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산내골 이사동은 은진송씨 집성촌이기도하지만 오백년 전의 은진송씨 무덤이 천 칠십 기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유네스코 인류자연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독특한 장례문화가 서려있는 지역이며, 한옥이 다수를 이루는 마을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마을로 발전을 기대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사동 초입에 인산숫대가 전통을 보전하고 있는 곳이며, 월송재 등 많은 전통문화시설이 있는 마을이다.

대전천을 시작하는 만인산 봉수래미골이 자리한 지역으로 매년 대전천 발원제를 민간인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등 전통문화가 깊숙하게 서려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산내에는 산업단지가 하소동에 등지를 틀고, 중부권 물류를 소화하는 물류센타도 설립되었으며, 대별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산내골 자연마을 집필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 들은 건축문화가 백년에서 오백년 천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 건축문화는 큰 관광자원이 되어 외화 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할 것이며, 개발이 능사가 아님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곰삭은 문화는 진한 향을 품으며 오래된 것일수록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어 소중한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문화를 잘 다스려서 자손대대 물려주어야

주어야 할 책임을 현재에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산내골 자연마을을 집필하면서 전문가, 마을 주민 등에 자문도 받고 행정관서의 협조를 받아 집필하였으며, 혹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수집에 수고해 주신 김영희 작가님과 드론 촬영에 수고해주신 신정규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책이 산내골의 소중한 건축문화 역사기록물이 되길 바란다.

이러 품기엔 부분은 재조사하여 수정 보완할 것이다.

대전 동구 역사 개요

대전 동구지역에 사람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고고학(考古學)을 발취해 봐야 할 것이다. 동구지역에서 발굴 되었거나 조사된 유물이나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청동기 시대의 것이다. 사성동 유적, 비룡동 선사유적, 세천동 선사유적, 삼정동 선사유적, 등에서 발굴된 고인돌이나 무늬없는 토기, 또는 김해식 토기등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부터 동구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문자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선사시대의 상황은 유적과 유물을 통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고고학상의 유물 유적이란 것이 당시의 자취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온 좋게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이거나 유물이 동구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구지역에 구석기인이나 신석기인이 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찍이 1960년대에 대전과 인접한 공주시의 금강유역에 있는 장기면 석장리 반포면 마암리에서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자취가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대전시 서구의 구즉동과 둔산동에서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채집되었다. 따라서 대전 동구지역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자취로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유적지와 구성동 유적지 등이 있다. 그러므로 동구지역에도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역사는 삼한시기부터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기 이전, 한반도의 남부지역에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불리는 수십 개의 소국이 병립하고 있었는데, 이를 삼한(三韓)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 대전 동구지역은 마한에 속해 있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면 대전 동구지역은 이들 소국 중에서 어디에 속하였을까? 이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삼한 소국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가지의 학설 중에서 마한의 소국인 신흠국(臣混國)을 대전지방의 진잠과 유성 사이의 어느 부분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대전 동구지역도 신흠국의 영역내 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마한 소국들은 한강유역에서 일어난 백제국의 발전과 세력 확장으로 그 지배력이 점차 위축되어 약화되다가, A.D. 4세기경 백제 근초고왕(346~375)때에 이르러 백제에 편입되었다. 대전 동구지역도 이 즈음에 백제에 편입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대전 동구지역의 자연적 요약

산내동은 남쪽으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동쪽으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서쪽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와 접하고 있으며 산내 JC를 끼고 있는 동구의 주요 관

식장산, 만인산 자연휴양림, 상소동 산림욕장, 오토캠핑장 및 이사동 한옥마을 등 우수한 레저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 기대되는 지역

면적이 50.4km² 달하는 넓은 도·농·상·공 복합지역으로 하소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구도동 물류단지, 하소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에 힘입은 지역개발이 기대되며 델러웨어 품종으로 유명한 산내 포도는 지역 제일의 특산품으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에 넣어야 하나?

대성동(大城洞)



대성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는 대성산(大城山)이라고 부르는 산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하여 대성리라고 부르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 (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에 따라 대성리라 하여 대전군 외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할 때 대전직할시에 편입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內洞)이다.

대성(大城) 대성산 아래에 있다 해서 대성이라 부르는데 여기 마을엔 대성마을 외에 아래대성 웃 대성이 마을 위 아래로 나누어져 있다. 대성 삼거리 부근을 이야기 한다.

통적골 조선 초기부터 이 마을엔 큰 못이 있고 달이 뜨는 밤이면 시정(詩情)에 잠기는 마을이라 해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선비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선비를 따라 온 한 지간은 여기 풍수를 풀어 큰 못에 잠긴 달을 보고 미월심강(美月沈江)이란 찬사를 이끼지 않았다 하는데 달이 큰 연못속에 잠겨 장관을 이루면 선비들이 통소를 불며 스스로를 달렸던 마을이라 하여 통적골이라 부른다 한다.

고산사(高山寺) 대전 동구 대성동 식장산 고산사에 있는 불전. 1636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건물.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마곡사(麻谷寺)의 말사이다. 886년(정강왕 1)도선(道詵)이 창건하였으며, 1636년(인조 14)수동(守童)화상이 중수하였으나, 자세한 사적은 전하지 않는다. 근래에는 1984년 극락보전을 중수하고 1989년 범종각을 새로 지었다.

1991년에는 1960년에 지은 적묵당을 개축하고, 1993년에는 산신각을 증축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과 극락보전·산신각·범종각이 있다. 대웅전은 1636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로,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중앙에 있지 않고 서단(西壇)에 동향하여 있어 특이하며, 후불탱화는 1815년(순조 15)운문사(雲門寺)에서 조성하여 이 절에 옮겨온 것으로, 은선(銀線)을 사용하여 그린 흔하지 않은 작품이다. 대웅전 앞에는 판독이 가능한 회응당충징대사부도(回應堂沖澄大師浮屠)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부도 1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작품이다.

깍대골은 아래대성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대성마을은 깍대골에서 행운을 실은 바람이 불어와야 부유한 마을이 된다고 해서 근심이 있을 때나 시름에 잠길 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눈길을 돌리는 곳이 깍대골이라고 한다.

비선골 비석이 서 있는 골짜기라 해서 비선골이라고 불렀다. 총접골 위 골짜기가 되는데 그 아래에 소년원이 있다.

싸릿골은 조선말기에 싸리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기를 못했다 한다. 싸릿골은 비전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다.

영미바위 식장산 고산사 아래에 있는 바위를 영미바위라 부른다. 이 바위속엔 큰 굴이 있고 그 밑에 절이 있다.

용바위 큰 곳골 에 올라가서 고산사를 찾으면 절 위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용바위라 부른다. 용바위 틈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깊이는 산 아래 냇물과 통해서 매우 깊으며 그 물줄기(irdp)이 무기가 살다가 이 용바위 틈을 통해서 증진했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바위라고 부르며 날이 가물면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노건

숙제

망경대(望京臺) 동구 대성동과 세천동 경계에 있는 산을 망경대라고 부른다. 또한 대성산, 용암산 이라고도 부른다. 산 높이가 598m나 되는 산으로 산에 용바이가 있으므로 용암산. 한양이 보인다하여 망경대라고 부른다 한다.

감나무골 대성동 심박골 골짜기 위쪽에 자리한 마을로 감나무가 많다.

고산들편대기(평전) 대성동 대성산 고산사 입구에 자리한 평평한 곳이다.

귀득이골 대성동각대골 골짜기 아래쪽에 자리한 작은 골짜기다.

귓골 대성동의 아랫대성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담재강변 대성동과 낭월동 사이에 자리한 내(川)이다.

마른내들 대성동 대별교 부근에 자리한 들이다.

막동골 대성동 감나골 마을 위쪽과 식장산 아래에 같은 이름의 골짜기가 각각 자리해 있다.

빨기밭편대기(들) 대성동 비선골 골짜기 입구에 자리한 들이다.

수리바위 대성동 통적골 골짜기 입구에 자리한 들이다.

심박골 대성동 웃 대성마을 위쪽에 자리한 골짜기 이다.

아랫대성마을 대성동 웃 대성마을 아래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울샘 대성동 각대기골 골짜기 중간에 자리한 샘이다.

작은귓골 대성동 아랫 대성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찬샘물 대성동 뒤편에 자리한 샘이다.

큰귀골 대성동 아랫 대성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식장산(食藏山) 백제의 한 장군이 이 산에 군량미를 쌓아 뒀다고 한다. 신라와 자주 전쟁을 치렀고, 국경을 이뤘던 곳이었으니 당연히 그럴 만했다. 백제로서는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조선 중종 때 도술가인 라한 전우치가 3년간 먹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이 산에 묻어 놓아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식장산은 이름만큼이나 유난히 '밥' 과 관련 있는 역사와 전설이 많다. 대전의 식장산(食藏山·해발 598m)은 이렇게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자락이 넓고 물이 좋아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땅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식이 들어간 산 이름도 이곳이 유일하다는 얘기도 있다. 식장산은 밥의 역사와 전설이 배인 풍요로운 산이기 때문에 전설도 여럿 전해지고 있는 산이다. 옛날 옛적에 효성이 지극한 어느 부부가 이 산 밑에 살았다. 가난한 부부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아들 하나가 있었다. 철없는 아들은 할머니의 밥을 자주 빼앗아 먹었다. 부부는 고심 끝에 아들을 버리기로 했다. 산에 올라 땅을 파다 보니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먹을 것이 나오는 밥그릇이 나왔다. 이 밥그릇 덕에 풍족하게 살았다. 부부는 늙은 어머니가 숨지자 욕심을 버리고 그릇을 다시 산에 묻었다. 이 때문에 '식기산' 이라고도 불렸으나 식장산에 묻혀 사라졌다고 한다. 식장산은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보문산과 계족산도 한발벌을 빙 둘러싸고 있지만 모두 500m 가 안 되는 산이다. 식장산은 험하지 않지만 넓은 숲과 뛰어난 생태계로 대전의 허파 노릇을 톡톡히 한다. 대전시는 1996년 식장산의 세천유원지 일대를 '자연생태보존림'으로 지정했다. 시 조사로는 이 일대에 224종의 식물과 노루, 살괭이, 너구리, 박쥐 등 100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다. 100여종의 새와 파충류, 양서류 등

도 서식하고 있다. 길옆으로 계곡 자락이 넓게 펼쳐진다. 군량미를 충분히 숨길 정도로 품이 넓다. 평원 위에 펼쳐진 밀림 같다. 그 자락에 조그만 바위들이 쌀밥에 콩 박히듯 박혀 있다. 숲은 상수리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팽나무 등 활엽수로 가득했다. 침엽수는 거의 없다. 흔한 소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온 산이 단풍에 물든 듯 했고, 길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길 따라 계곡물·바람·새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낭만이 함께하는 산이다.

식장산은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산이다. 대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상 부근 전망대다. 낮의 대전시내를 최고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인들 사이에 '데이트 명소'로 소문이 나 있다. 길은 세천유원지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포장된 산길을 타고 차로 10분쯤 가면 이곳에 다다른다. 길이가 4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도로가 워낙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 보면 늦어진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대전시내는 발끝에서 한없이 먼 아래 누워 있다. 대전시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보문산 전망대와 뒀판이다.

식장산 전망대에서는 큰 밭(한밭·大田)이 빙 둘러친 산과 계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듯 보인다. 산 아래 별 모양으로 깊숙이 내려앉았다. 오른쪽에 푸른 대청호가 보이고, 계족산이 도시와 호반 사이에 둘러쳐져 있다. 왼쪽에는 보문산이 펼쳐져 있다. 먼 북쪽 산이 계룡산 자락이다. 주말이면 패러글라이딩 애호가, 타는 사람, 사진작가 등으로 붐빈다. 전망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는 "주말에는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라면서 "'오래전부터 찍어온 사진을 시간대별로 펼쳐보면 대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인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다."고 전했다.

대성동이 품은 유형문화재

“고산사(高山寺)”

근대골 대전 동구 대성동 식장산 고산사에 있는 불전. 1636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건물.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麻谷寺)의 말사이다. 886년(정강왕 1)도선(道詵)이 창건하였으며, 1636년(인조 14)수등(守登)화상이 중수하였으나, 자세한 사적은 전하지 않는다. 근래에는 1984년 극락보전을 중수하고 1989년 범종각을 새로 지었다.

1991년에는 1960년에 지은 적묵당을 개축하고, 1993년에는 산신각을 증축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과 극락보전·산신각·범종각이 있다. 대웅전은 1636년에 중수한 정

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로,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중앙에 있지 않고 서단(西壇)에 동향하여 있어 특이하며, 후불탱화는 1815년(순조 15)운문사(雲門寺)에서 조성하여 이 절에 옮겨온 것으로, 은선(銀線)을 사용하여 그린 흔하지 않은 작품이다. 대웅전 앞에는 판독이 가능한 회응당충징대사부도(回應堂冲澄大師浮屠)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부도 1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작품이다.



고산사 전경



고산사의 봄



고산사의 겨울

“고산사 대웅전(高山寺 大雄殿)”

분류기호 사유형문화재 10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177번자 대전로 716번길 23 (대성동)

시대 조선

종류 사찰

지정일 1929. 3. 18



대웅전은 대전 동구 대성동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100m정도 오르면 남부순환도로 굴다리가 나온다, 그 굴다리 밑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면 식장산 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고산사(高山寺)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산사(高山寺)는 886년(신라정강왕 원년) 도선국사(道詵國師827-898)가 창건하고 1636(인조14년) 수등국사(守登國師)가 중건하였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여섯 차례 중건되었지만 대웅전은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양성각(兩聖閣), 극락보전(極樂寶殿) 등이 있고, 대우언 앞 좌측으로 2기의 부도(浮屠)가 있다. 대웅전을 수리할 때 법장산 법장사(法藏山 法藏寺)라는 상량문(上樑文)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고산사의 옛이름이 법장사였음을 알 수 있다. 대웅전(大雄殿)은 앞면3칸 옆면 2칸으로 석축기단 위에 덩벙 주춧돌을 사영하여 세워져 있다.

건축양식은 조선시대 었던 다포식 계통의 건물로 기둥을 결구(結構)하고 있는 창방(唱榜) 위에 평방(平枋)을 놓고 기둥(柱)인와 기둥 사이에 1개씩의 공포(拱包)를 배치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내4층목, 외3층목으로 내부의 출목수를 외부보다 더 많게 한 조선시대 후

리

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물의 양 측면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1개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지금과 같은 맞배붕이 아니라 팔작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내부에 있는 후불탱화는 순조 15년(1815)에 청도 운문사에서 저성한 것이다. 대웅전을 수리할 때 법장산 법장사라는 상량문이 발견되어 고산사의 옛 이름이 법장사였다고 사료된다.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高山寺 木造釋迦牟尼佛坐像)”

분류 기호 시 유형문화재 32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산3번지

시대 조선시대

지정일 2005년 5월 9일

대전권 기념사업 205(대성동)



고산사목조석가모니불좌상은 대전동구 대성동 산3번지 고산사 대웅전에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 내 좌측에 안치(安置)되어 있는 이 좌상(坐像)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넓은 무릎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앉아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짓고 앞으로 약간 수그리고 앉은 자세다. 머리부분에는 나계(螺髻)가 선명히 표현되어,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얼굴의 모양(模樣)은 약간 긴 네모꼴에 가까우며 눈은 살며시 내려뜬 상태이고, 입은 살포시 다문 상태로, 근엄 엄숙함이 깊게 간직되어 있다. 둥근 볼을 타고 오뚝히

솟은 코와 입가에서 잔잔히 흘러내리는 미소가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안겨준다. 삼십이상(三十二相)에 하나인 눈썹 사이의 백호는 매우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손에 모양은 몸 전체의 크기에 알맞게 균형잡혀 있어,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법의는 어깨를 다 덮은 통견이며, 옷의주름은 주름선만 몇 가닥 단순처리하여 표현하였

중

3

으나, 매우 부드러운 곡선감을 준다. 이 석가모니불좌상은 불상의 형식이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아, 17세기에 유행하던 불상 제작상의 형식적 특성을 잘 갖추고 있으나, 어깨의 통견식 표현이 아랫배 중간에서 갈라져 나온 모습은,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인 오른쪽 팔에 편삼을 입은 모습과 흡사한 것으로, 이러한 법의 착 형식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조성시기는 후기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소 비례감 수도 있다.*

라

“고산사 아미타불화(高山寺 阿彌陀佛畫)”

남해군 시 *유형문화재 제10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산3번지(교산사 경내) 대전광역시 16번길 205(대성동)
지정일	2005년 5월 9일
시대	조선시대



대전 동구 대성동 산 3번지 식장산 중(중)에 자리한 고산사 대웅전 안에 고산사 아미타불화(高山寺阿彌陀佛畫)가 있다. 고산사는 신라 현강왕(?~886)원년에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가 창건하고, 조선 인조(1595~1649) 14년(1636)에 중건(重建)된 유서(由緒)깊은 사찰(寺刹)이다. 고산사 대웅전 안에 고산사아미타불화(高山寺阿彌陀佛畫)가 있다. 이 불화는 1815년 청도 운문사(靑道 雲門寺)에서 제작된 것이다. 족자형태의 후불탱화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작품이며, 가로로 꺾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바탕을 붉은색으로 처리한후 피부와 머리만을 색칠하고, 나머지는 금선(金線)으로 그려낸 홍 탕화이다. 중앙의 본존불(本尊佛)을 중심으로 각 인물들이 에워싸듯 둥글게 그려져 있다. 양쪽중단에는 여덟 분(分) 보살이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아미타 8대 보살을 배치하였다. 불상(佛像)의 기본이 되는 보살상(菩薩像), 청왕상(天王像), 명왕상(明王像), 나한상(羅漢像), 팔부중(八部衆) 중에서 팔부중을 중심으로 하여 그렸고, 하단 좌우로는 사천왕이 그려져 있다. 이 불화는 비록 부분적인 결락(缺落)이 있고 현재 표구상태(表具狀態)가 좋지 않으나, 조성년대(造成年代)와 화사(畫史), 조성장소, 봉안처(奉安處) 등 조성배경이 분명하며, 유려한 필치(筆致)와 능숙한 선묘(選苗)로 인하여 현전(現前)하는 흥정 가운데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아미타불화는 아미극락회상도로써, 경북 영천 은해사 거조암의 영산회상흥정(1786)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 아미타불화와 영산회상흥정이 모두 선묘불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은니(銀泥)로 그려져 있는 점이나, 하품중생인을 취한 수인의 형태, 보존 착의와 광배의 형태, 사천왕의 자세와 보살이 모습 등을 볼 때 분 두 불화의 연관성은 매우 깊다.

→ 아미타극락회상도

착의법, 기형

대성동 풍경



대성동 전경



대성, 대벌, 낭월 전경



대성동 삼거리전경



은어송중학교



남부여성가족원



대성삼거리 부근



대성삼거리 근교



대성삼거리 직전



대전로 288-46



대전로 246-1



대전로 288 페가



대전로 288-36



대전로 288-38



대전로 288-42



대전로 288-48



대전로 288-46



대전로 298



대전로 304-6



대전로 312-33



대전로 304-30



밝은요양원



보도사



산내농협



삼거리근교 병원



삼익세라믹

동구문화총서 17호



은어송2단지



은어송중학교 앞 삼거리



일품정육점근교



평양수두부



하늘채 아파트

대별동(大別洞)



대별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 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대별동 비파산이 큰 자라 모양이고 이곳에 큰 연못이 있었으며 그 연못 속에 큰 자라가 있었으며, 사육신인 박팽년의 조부 박상원의 묘 자리가 큰 자라모양의 명당이고, 조선중기 송남수가 아버지 성못길에 냇물이 크게 불었을 때 큰 자라 다섯 마리가 떠올라 징검다리가 되어

냇물을 무사히 건너게 하여 큰 대(大)자에 자라별(齧)자를 써 대별리라 부르다가 일단 쓰기 쉬운 분별(別)자로 사람들이 써오며 따라 지금의 한자표기어 대별동(大別洞)이 되었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 (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그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돈리(敦里), 백운리(白雲里)와 외남면(外南面)의 대별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별리라고 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 할 때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內洞)이다. 대별리는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집성촌(集姓村)이다.

지프젓골은 대별동에서 소호동(所好洞)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프젓골 이라 부른다. 지프젓 양쪽에 솟아 있는 괴상한 바위 석벽이 마치 비파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이재를 비파티 라고도 부르는데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티재 지프젓골이라고 부른다. 대별동 남쪽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장성골 대별동과 이사동 경계에 있는 골짜기를 장성골 이라고 부른다. 장성이 서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장성골 이라고 부른다.

애바위 대별동 북쪽 산모퉁이에 있는 바위인데 이 바위에 정성을 들이면 혈육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둔 사람은 잘 자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바위다. 애바위를 아암 이라고도 부른다.

안대별 대별동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내대별(內大別)이라고도 부르는데 부락 안쪽에 있다하여 안대별이라고 부른다.

벌뜸 벌판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벌뜸 이라고 부른다 한다. 대별동 동쪽 벌판에 있는 마을로 이를 벌뜸이라고 한다.

배우니 옛날 이 마을 앞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속에 큰 자라가 살고 있었는데 자라가 물 위로 올라와 놀 때는 흰 구름이 그 자라를 보호하여 주었다 한다. 그로 인하여 백운리(白雲里), 백운 이라 부르며 배우니라고도 부른다.

동이골 대별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朝鮮때 찬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어서 시원한 물을 퍼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아낙네 들이 물동이를 지고 줄을 섰다 하는데, 물동이를 이고 드나들던 동네라고 해서 동이골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박원상朴元象의 묘 대별동에 있는 박원상의 묘. 박원상은 박팽년(朴彭年)의 증조부로 평양(平陽)순천 박씨의 중시조이며 묘비는 송시열이 짓고 송길준이 썼다.

감나무골 대별동 도니골마을 서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건너뜰 대별동 안대별마을 동남쪽에 자리한 들이다.

구구리모퉁이(모퉁이) 대별동 석천산 아래에 자리한 모퉁이다.

누에머리산 대별동의 지푸재산 오른쪽에 자리한 봉우리다

- 노루고개 대별동 양정마을에서 낭월동 석천들로 가는 고개이다.
- 다리샘 대별동 다리샘골 골짜기에 자리한 약수 샘이다.
- 도둑골 대별동 석천산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도둑이 소를 잡아먹은 곳이라고 한다.
- 돈미골 대별동 돈미들 남쪽 골짜기에 자리한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다.
- 돈미들 대별동 안대별마을 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 범바위 대별동 북서쪽에 자리한 바위로 호라이가 와서 놀다갔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다.
- 비파령(지프재)고개 대별동에서 소호동으로 넘는 고개로 바위가 비파처럼 생겼다.
- 새뜸들 대별동의 벌뜸마을 옆에 있는 들이다.
- 솔밭숲 대별동 불당골 골짜기 입구에 자리한 숲으로, 소나무가 우거져있다.
- 수리바위날(산) 대별동 지프재산 왼쪽에 자리한 산이다.
- 싸리골 대별동 동남쪽 식장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연고개 대별동 도니골마을 너머에 있는 고개이다.
- 자라교(다리) 대별동의 안대별 마을과 중뜸 마을을 잇는 작은 다리이다.
- 자라내(냇물) 대별동 안대별 마을 중간을 지나는 개울이다.
- 지프재고개날망(마루) 대별동 지프재산 동남쪽에 자리한 산 마루다.
- 지프재방죽(연못) 대별동 지프재산 오른쪽에 자리한 물웅덩이이다.
- 지프재산 대별동 남쪽에 자리한 큰산이다.
- 찬샘 대별동 남쪽 지프재산 도니골 마을에 자리한 샘으로 물이 차다.
- 참상골 대별동 남쪽 지프재산 도니골 마을 옆의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다.
- 큰매골 대별동 서쪽 두루봉산 뒤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팽개바위 대별동 남쪽 지프재산에 자리한 바위이다.
- 할미바위 대별동 남쪽 지프재산 약수터 부근에 자리한 바위이다.
- 회나무골 대별동 북서쪽 안대별마을 밑의 마을 끝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인산숫대마을을 품은 대별동 당산

“인산숫대마을”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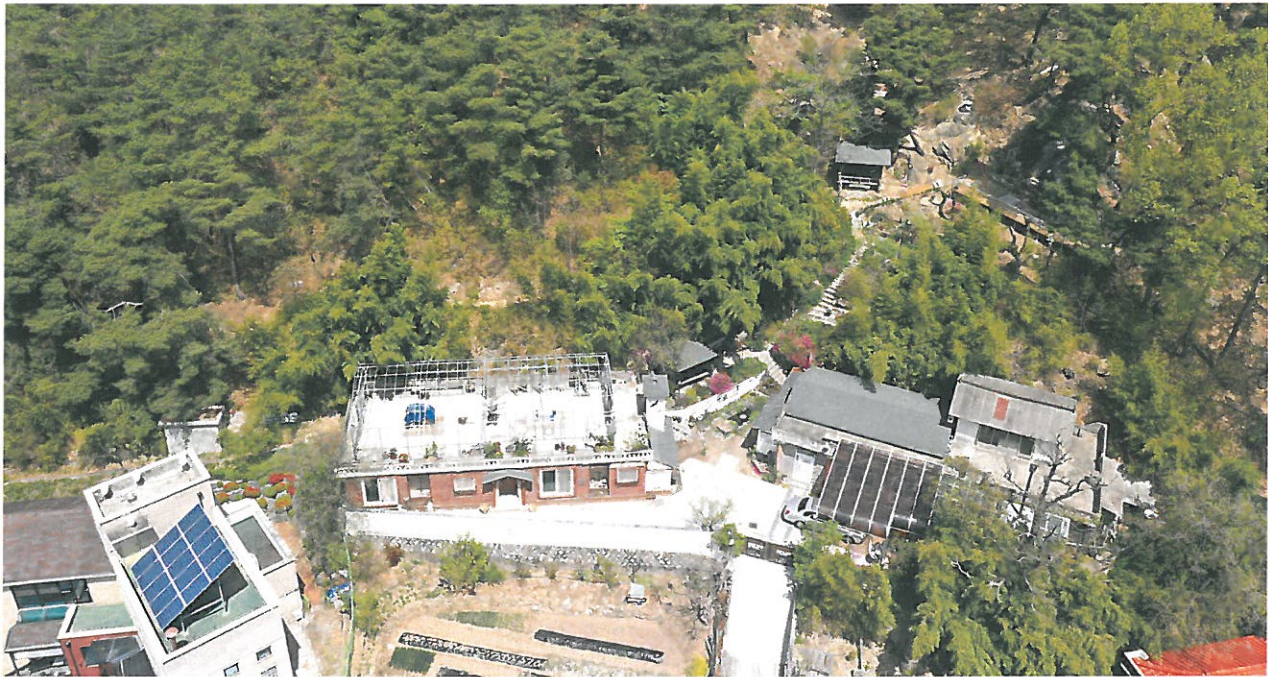
대전 면허시험장 입구에서 이사동 방향으로 1Km 정도를 가면 이사동 오도산에서 발원한 자라천엔 자라교라는 작은 다리가 나온다.

자라교의 유래는 조선 중기에 송촌에 사는 송담(松潭) 송남수(宋耜壽)가 아버지 안악공(安岳公)의 산소를 이사동에 모시고 이곳을 지나 성묘를 다녔는데 하루는 밤사이 자라천에 장맛비로 냇물이 크게 불어서 내를 건널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큰 자라 다섯 마리가 물속에서 떠올라 징검다리를 만들어 아버지의 산소를 성묘하도록 하여 효를 행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자라교를 건너면 열대여섯 가구의 작은 동네가 나오는데 바로 안대별 혹은 내대별(內大別)이라 부르는데 이마을 뒷산이 바로 대별동 당산이고 그 당산 자락에 인산숫대마을이 있다.

이곳은 이사동 은진송씨 집성촌의 나들목인 동시에 숫대와 장승이 서 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던 민족신앙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있는 우리 영혼의 고향 같은 장소이다.

이곳 당산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던 곳으로 27년 전 발굴하여 새로 복원된 곳으로 지금은 수많은 숫대와 장승을 세워놓고 해마다 정월보름에 숫대제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12회째 지내고 있다.



인산 솃대마을 당산 전경



곰바위굴 내부



작품명 나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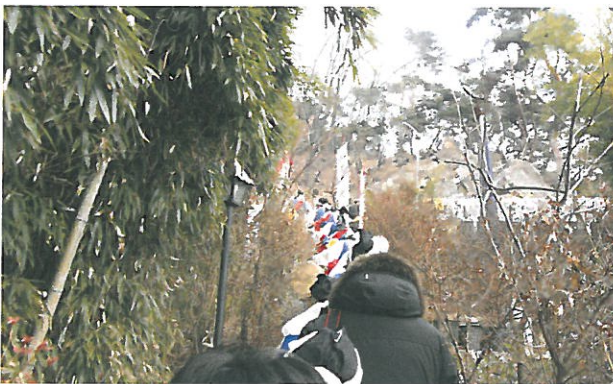
이곳 대별동 뒷산 야트막한 당산에 올라보면 산내동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 마을 저 마을 주저리주저리 맺혀있는 전설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는 동네 뒷산 당산에는 아들, 딸 점지해달라고 빌고, 또 동네 풍요와 액운을 막아달라고 빌던 여서낭인 곰바위굴이 있는데 약 200여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굴의 길이는 약 15m이고 굴의 최고 높은 곳의 높이는 대략

3m가 넘는다. 그리고 곰바위 굴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남서향인 봉황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마을에서 제를 올리던 곳으로 재단을 새롭게 복원했다. 봉황바위의 크기는 대략 높이는 3.5m 길이는 5m 정도 되는 자연석으로서 형태가 봉황이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기도행위를 하며 아들딸들을 낳아달라고 간절히 빌던 곳이 있는데 봉황바위에서 30m 정도 올라가면 지금도 성혈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남근바위와 연이어 만인산 정기봉의 정기를 받아 내리는 곳에 자리한 여근바위가 산세와 더불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 규모는 대략 20m가 훨씬 넘는 크기로서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에서 빌던 많은 암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전문화의 메카(산내, 회덕, 진잠)로서 한 축인 산내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선암(仙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암에 앉아서 바라보는 일출과 절경은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조상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내재된 의미를 찾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유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공간이다.

특히 이곳에 앉아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면 만인산의 정기봉이 우뚝 서 있고 그 품에 자리한 태조대왕의 태실이 있고, 만인산 너머에는 서대산의 장군봉이 정기봉의 임금을 외호하고 있다. 그리고 고개를 좌로 돌려보면 임금이 살고있는 한양을 바라보고자 했던 식장산 망경봉이 보이고, 그 옆으로 국사봉, 명지봉, 강바위산(장군봉), 비파산, 오도산 등 조선의 육조를 가리키는 아름답고 수려한 봉우리들이 임금 앞에 도열해 서있는 듯 하다.



-shot festival 길놀이



제12회 대별동 인산-shot festival 문화제

이처럼 이곳의 지세와 지명만 보아도 조상들은 늘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천지신명님께 빌고 빌었던 작은 그루터기가 바로 대별동 당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당산에 솟대와 장승을 세워놓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사색하며 넓게 그리고 멀리 조망하며 살고자 했던 결 곱고 순박했던 조상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솟대를 세우고 바위마다 봉우리마다 무릎 꿇고 천지신명께 빌며 가장 평범한 당산을 가장 위대한 성소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별동 풍경

정기복서진 12



대전남문교회



마을회관, 노인회관



별천지식당



남대전요양병원



남대전장례식장



대별수변공원



대별수변공원



대별수변공원



대별동시장가



대별동시장가



산서로 50



산서로16-45



산서로 1626



산서로 1643



산서로 1645



산서로 1648



산서로1953



모터스



산서로 55



산서로 80-2



성불사



완전사



세원운수



윤정식품



이사로 34



이사로102



이사로102



이사로 109



이사로 30



이사로 38



이사로 40



이사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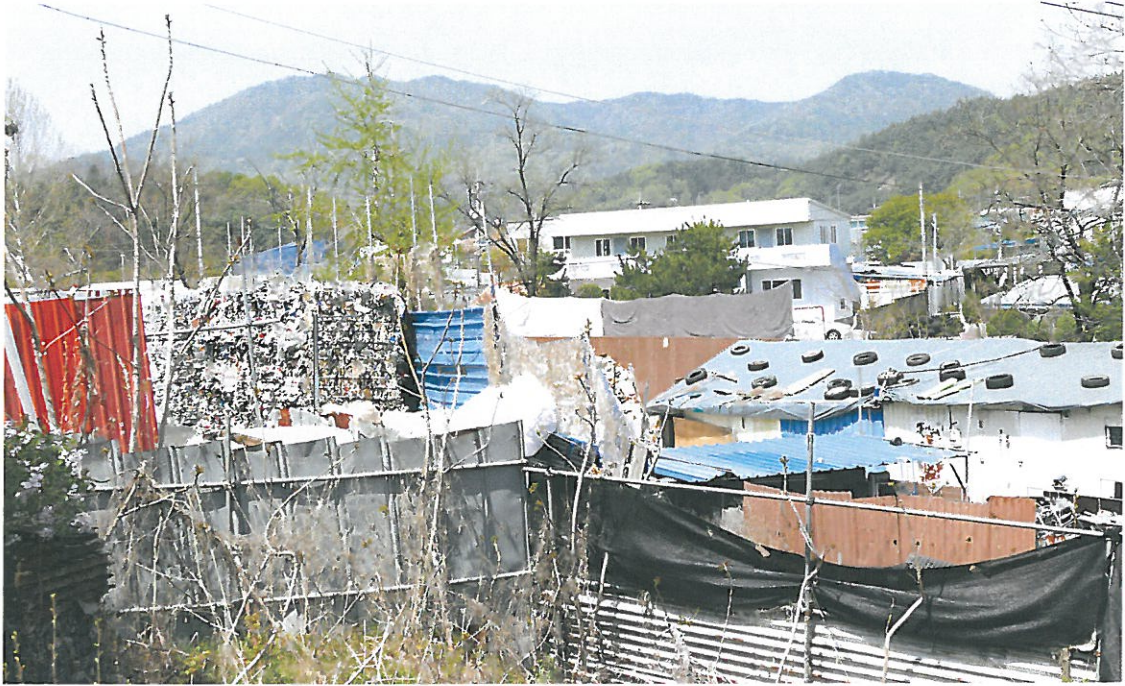
이사로 46



이사로 58



장척동가는길



폐가(운전면허시험장근처)



하나님의 교회



대명자동차



현민상사



홍일자동차학원

이사동(二沙洞)



이사동(二沙洞)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이 지역은 보문산(寶文山) 안쪽에 자리해 있어 산안(山安) 또는 산내(山內)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사라니 또는 사한(沙寒) 이라고도 부르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 (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사한리(上沙寒里), 하사한리(下泗寒里)를 병합하였다. 두 사한리를 병합하였다

는 뜻으로 이사리(二沙里)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할 때 대전직할시에 편입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內洞)이다. 은진송씨(恩津宋氏) 집성촌(集姓村)이며, 한옥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마을 뒷산에는 오백년도 넘은 은진송씨 묘(墓) 천여기가 있는 곳으로 각종 문화재도 많이 있는 전통역사가 오롯이 보존된 곳이다. 또한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전통문화 관광지로 발돋움도 기대해 볼만한 곳이기도 하다.

의 ✓

장두봉 이사동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산 모양이 누에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장두봉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물방앗골 옷사라니 남쪽에 있는 골짜기다. 이 골짜기 에는 아담한 물레방아가 있었다 하는데 연중 쉬지않고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골짜기다.

영귀대(英歸臺) 조선말기 고종 때 학자인 송병화(宋炳華)가 후학(後學)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자(亭子)를 짓고 자라나는 후학들을 가르쳤다 하는 곳으로 옷사라니에 있었던 정자다.

사라니 달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여기가 모래의 산이었고 그 후 샘 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 샘물이 찬 어름과 같다고 해서 그 샘을 한천(寒泉)이라 불렀다 한다. 보문산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산안 이라 부르다가 변하여 사라나라 부른다 한다. 사라니에는 옷 사라니 아랫 사라니가 있다.

오도산(梧道山)의 싸움터 이사동 뒷산을 오도산(梧道山)이라 한다. 그 산봉(山峯)이 칼날 같아서 우측(右側)에 서만 올라갈 수 있고 한편은 돌로 움집모양같이 쌓아 놓은 곳이다.

여기서 일본 제국시대 1917년 11월 17일 의병장(義兵將) 이규홍이 수 십 명의 왜병(倭兵)과 최후의 싸움을 하던 곳으로 여기서 단신(單身) 투석(投石)으로 맞서 왜병 3명을 죽이고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그는 고향인 익산군에서 재산을 팔아 1906년 열 여섯 동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1907년 11월 15일 진안 용택에서, 또 고산군 왜병 29명을 사살하고 같은 해 12월 에는 진안, 장수, 용담등에서 왜병 44명을 사살, 1908년 1월 에는 금산, 진산에서 왜병 56명을 사살 하고 왜병과 싸우다 1908년 4월에 의병을 해산하고 다음 기회를 엿 보던 중 1915년 동구 이사동 안창재(안창재(安昌在)의 다락방에 숨어서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데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아 끝까지 싸우다가 왜병을 물리치고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가 싸운곳이 이사동 오도산 이다.

동노사(東魯祠)는 이사동 노적봉 줄기 끝 송림 가운데에 있는 사당이다. 1920년에 건립하였으며 이조말의 유학자(儒學者)난곡(蘭谷) 또는 표제(約齋)인 송병화의 유지를 받들어 문중(門中) 및 유림들이 세운 사당이다.

우락정(憂樂亭) 이사동에는 우락정(憂樂亭) 이라는 정자(亭子)가 있다. 동춘당(同春堂)의 아버지 송이창(宋爾昌)이 별세하자 여기에 우락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를 하였다. 우락정(憂樂亭)은 송준길이 쓴 글씨다.

유허비(遺墟碑) 이사동에 송국택(宋國澤)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유허비는 1971년 송진백이 짓고 유정웅이 비문을 썼다. 송국택은 김장생(金長生)의 문하로 인조(仁祖) 40년(1624)에 문과에 합격하고 벼슬길에 올라 승지(承旨),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지낸 인물로 저서로는 사우당집(四友堂集)이 있다.

금암집판각(琴巖集板刻) 금암공(琴巖公) 송몽인(宋夢寅)의 저서 금암집은 광해 8년 죽창(竹窓) 이시택(李時擇)이 짓고 산인(山人) 지송(智嵩)이 조각한 것으로 이 판각이 은진 송씨 문중에 판각중 에서 가장 오래된 판각이다.

송몽인(宋夢寅)은 1582년에 대덕구 송촌동에서 태어나 24세때 1605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저서로는 금암지와 수권의 책을 지었다.

송요년(宋遙年)의 묘 송요년은 조선초기의 문관으로 본관은 은진이며 송유(宋愉)의 손자이다. 회덕면 백달촌에서 출생하였으며 단종(端宗) 1년(1453)에 생원시에 합격해서 한산군수로 재임할 때 성종(成宗) 10년(1479)에 51세로 멸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그후 홍주목사, 군자감정 등 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의 묘비(墓碑)성현(成愼)이 위불부덕(位不不德)이라 쓴 것은 그가 관직에 청진(淸振)하고 이르는 곳마다 성예(聲譽)가 있었으나 일을 지연하고 머뭇거리다가 책죄(責罪)당하기도 하여 그렇게 영달하지 못하였다 해서 쓴 글이다. 연산군 5년(1499) 사망하였다.

달봉산 이사동 음지뜸마을 동쪽에 자리한 산이다.

마당골 이사동의 학교개 안에 자리한 골짜기다.

대추나무골 이사동 학교개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돌고개 이사동에서 구완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물방앗골 이사동 오도산의 동쪽에 자리한 큰 골짜기로 물레방아가 있었다.

바구니골 이사동 양지뜸 뒷산과 장군봉산 사이에 자리한 골짜기다.

방아골 이사동 광영소류지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배고개마을 이사동 물방앗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부영새골 이사동 물방앗골 골짜기 위의 골짜기로 밤마다 부영새가 울었다 한다.

사구실마을 이사동 물방앗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사라니마을 이사동 아래사라니 마을 위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사한골 대별동 지프재 골짜기 서쪽에서 이사동으로 흘러내린 골짜기다.

수영골마을 이사동 물방앗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양지뜸마을 우락재와 은진송씨 재실이 있는 마을이다.

아래사라니마을 이사동 입구의마을로 장승이 있었으나 일제때 사라졌다.

우더울마을 이사동 물방앗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웃사라니 마을 이사동 사라니마을의 위쪽에 자리한 마을로 이곳산에 모래가 많고 깨끗하여 사산(砂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음지뜸 양지뜸 마을 남쪽들 가운데에 자리한 마을이다. (김옥균생가 유허가 있는 마을이다.)

이사모퉁이거리 이사동 아래사라니 마을에서 대별동 으로 가는 길이다.

지느리고개 이사동 옷사라니마을에서 호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주랭이들(자운평) 이사동 양지뜸마을과 지느리고개 사이의 고개이다.

절고개 이사동 음지뜸마을 서쪽 절골골짜기에서 구완동으로 가는 고개다.

절앞들 이사동 옷사라니마을 안쪽에 자리한 들로, 옛날 들 뒤로 절이있었다 한다.

절터골 이사동 옷사라니마을 안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절터가 있었다.

지청골 이사동 하고개 안에 자리한 골짜기다.

작골 이사동 하고개 안에 자리한 골짜기다.

찬샘골 이사동 돌고개의 산줄기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큰골 이사동 물방앗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골짜기다.

하고개(학고개) 이사동 아래사라니마을에서 대전 가는 고개로 묘지에서 학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합박골 이사동 물래방앗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 학이 날아간 고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래사라니 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는 데에 고개가 하나 있었다. 고개 아래에는 옛날부터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종들의 집도 많았다 한다. 이 마을에 큰 양반집 종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항상 양반집에서 못 태어난 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하였다. 양반이래야 자기와 똑같이 눈 코가 같았으며 다만 재물이 있던 없던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 양반이라고 생각해 보니 자기라고 누구에게 대우를 바라지 말라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고 생각 했었다. 더구나 자기를 부리는 양반 댁 아들은 자기와 동갑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모자란 아이였다. 그래도 마당쇠야 하면은 네... 하고 달려 가야 해 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하다보면 구역질나는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는 주인집 아들로 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는 집에 와서 부모들께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왜 쌍것으로 이 세상에 떨어 졌나 말이야. 그 혼한 양반 한번 못하고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면서 차라리 칼을 물고 죽으란 말이야. 자식에게 종노릇하라고 세상에 내 질렸냐고 소리 지르고 하였다.”

차마 못할말 까지 하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그는 때때로 집에 돌아오면 날이 갈수록 심하게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자식의 난폭한 행동에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진산장에 들린 그의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양반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인삼장사를 시작하여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서 나라에 바친 다음에 양반이 되었으며 벼슬까지 샀다. 마을에서 구박을 받다 양반이 된 아버지는 갓을 쓰고 버선을 신고 차림을 깨끗하게 하고 거드름을 피며 갈지자 거름으로 마을을 활보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더더욱 마을에 사는 종들이 돈 양반 똥 양반 두 양반 하고 히히덕 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몽클몽클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히히덕 거리는 소리를 참지 못한 그는 옛날 자기의 아들을 부리던 큰 양반 집에 거드름을 떨며 들어갔었다. 여봐라, 거기 송진사 있느냐? 여기 박진사가 왔다. 마당에 들어 갈으나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 주막에 가서 막걸리 서너사발을 마시고 다시 큰 양반댁으로 가서 신발을 신은 채 마루를 거쳐 사랑방으로 들어가서 같은 진사가 왔는데 모르는척하느냐면서 먹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화가 머리 끝 까지 난 양반에게 힘이 썩 사람이 큰 양반이라고 옷통을 벗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다. 큰 양반은 참으면 종들에게 대문밖까지 모셔다드리라고 하여 종들이 집안에서는 정중이모시고 대문밖에 나가서 몽둥이로 두 돌 겨 꿰서 죽고 말았다. 그 아들이 복수를 하려고 무술을 배우려고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지지 못하고 큰 양반집을 망하게 하려고 헛소문으로 양반 댁 선대의 묘가 있는 자리가 동네가 망하는 자리라고 소문을 내서 동네 사람들이 양반집 묘를 파헤치니까 그 묘에서 학이 나와 주변을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학 고개는 하고개 하오개 학티 라고 부르다가 지금 학 고개로 부르고 있다.

이사동이 품은 문화재

선^의랑공파 재실 우락재(宣務郎公派 齋室 憂樂齊)^재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187
 종류 사우
 시대 미상



우락재 ^재



선무랑공파재실 전경



선무랑공파재실

재실

우락재는 이사동 잇사라니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우락재는 1628년에 송준길이 삼년 시묘를 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우락이란 주역에 ‘비락사우’란 말도 있지만 맹자가 말한 ‘우이천하 락이천하’ (천하로써 걱정하고 천하로써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우락재’라고 쓴 글씨는 동춘당이 쓴 것이며, 이곳에서 시묘하고 있을 때 우암, 초려, 사우당 등 여러 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강론하였다고 한다. 이초려의 글에 ‘낙중유우우중유락, 유기우소이락’ (樂中有憂憂中有樂 惟基憂 所以樂)이란 글귀가 있으니 우락재와 관계있는 글이라 하겠다. 가옥의 구조는 삼칸 맞배지붕으로 7평 가량의 건물이다.

“송요년 묘(宋遙年 墓)”

분류기호 : 시도지정기념물 제44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17
시대	조선 연산군 5년(1499) 영조 8년(1732)
종류	묘



송요년의 묘는 잇사라니 마을의 목사공재실 오른쪽 묘역에 위치한다. 송요년(1429~1499)은 쌍청당 송유의 손자로 문과에 급제하여 홍주목사와 군자감정 겸 교서관판교를 지냈다. 묘에는 연산군 5년(1499)과 영조 8년(1732)에 세워진 묘비가 있다. 연산군대에 세워진 묘표는 성현이 지었으며,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 통훈대부군자감정겸교서관판교 송공지묘 숙인 김씨부’라고 되어있다. 크기는 높이 99cm, 폭 48cm, 두께 17cm이다. 이후의 묘표는 성현이 지은 비문에 송필항이 추기하고 송문흠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 통훈대부 군자감정겸교서관판교김공요년지묘 숙인 라주김씨부좌’라고 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145cm, 폭 61cm, 두께 25cm이다.

“송세욱 묘(宋世勛 苗)”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잇사라니 마을
시대	조선 선조 20년 (1587)
종류	묘



송세욱의 묘는 이사동 윗사라니 마을의 우락재 뒤쪽 묘역에 있는 송희갑의 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송세욱(1489~1569)은 여림의 제수자이며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삼척포침절제사가 되었다. 우노전에 들어 품계가 가선에 올랐다. 묘비는 선조 20년(1587)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송응동이 지었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송공지묘 정부인 전주이씨부우후' 라고 되어있다. 크기는 높이 140cm, 폭 50cm, 두께 22.5cm이다.

“송국강 묘(苗)”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시대 조선
종류 묘



묘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절우당 왼쪽 묘역의 맨 위쪽에 있는 송국사의 묘에서 오른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송국강(1588~1672)은 사우당 송국택의 형이다. 수계(壽階)로 호군(護軍)을 제수 받았고 또 후에 희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묘비의 건립 연대는 미상이며, 비문은 권상하가 짓고 이견명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 희선대부 용양 위부호군 송공각각배기묘 숙인순천박씨부좌 숙인전주이씨부좌 라고 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110cm, 폭 46cm, 두께 27cm이다.

기
신선대부

“송여림 묘(宋汝霖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17
시대 조선 선조 21년(1588)
종류 묘



송여림의 묘는 이사동 잇사라니 마을의 목사공재실 뒤쪽 묘역에 위치한다. 송여림(1461~1529)은 목사 송요년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양근 군수를 지냈다. 이후 통례원 좌통례에 추증되었다. 좌의정 김국광이 그의 장인인데 이때부터 연산의 광산김씨와 은진송씨가 혼인하기 시작하였다. 묘비는 선조 21년(1588)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송남수가 짓고 썼다. 비의 전문에는 ‘유명조선국 통훈대부행양근군수 송공지묘 숙인김씨 부장우동’ 라고 되어있다. 크기는 높이 78cm, 폭 48cm, 두께 16cm이다. 위 비는 쌍분 중앙에 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새겨 1944년에 세운 비가 묘 왼쪽에 있는데 송정인이 추기하고 송우용이 쓰고 송기용이 두전하였다.

“송세훈 묘(宋世勛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3
시대 조선 선조 23년 (1590)
종류 묘



송세훈의 묘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절우당 왼쪽 모퉁에 위치한다. 송세훈(1479~1552)은 여림의 9자중에 장자이며, 안악군수를 지냈다. 묘비는 선조 23년(1590)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송남수가 짓고 썼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국 통훈대부행안구군수 송공지묘 숙인 증씨 합장우동’ 라고 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90.7cm, 폭 40.5cm이다.

“송응서 묘(宋應瑞 墓)”

원형이 보존된 시도 지정 기념물 제 45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윗사라니마을
 시대 조선 광해군 2년(1610)
 종류 묘



송응서의 묘는 이사동 윗사라니 마을의 우락재 뒤쪽 묘역에 있는 송여즙의 묘 아래쪽에 위치한다. 송응서(1530~1608)는 동춘당 송준길의 조부이다. 그는 임청 군수를 지냈으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묘비는 광해군 2년(1610)에 세웠으며, 비문은 신희이 짓고 김집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근위장군행용양위부호군송공지묘 영이 광중씨부좌’ 라고 되어있다.

“송여집 묘(宋汝偁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17
시대	조선 효종 3년 (1652)
종류	묘

송여집의 묘는 이사동 윗사라니 마을의 우락재 뒤쪽 묘역에 위치한다. 송여집은 군수 여림의 아우이다. 송촌동에 살았는데, 마을 뒤에 학당을 짓고 공부만 하다 28세에 요절하였다. 품계는 선무랑이었다. 묘비는 효종 3년(1652)에 세워졌으며, 정경세가 짓고 송석운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증 통정대부호조참의 행통훈대부사헌부감찰 송공여집지묘 증숙부인 남양홍씨부’ 라고 되어있다. 크기는 높이 140cm, 폭 56cm, 두께 15.5cm이다.

“송희명의 묘(宋希命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3번지
시대	조선 현종 1년 (1660)
종류	묘



송희명의 묘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절우당 왼쪽 묘역에 위치한다. 송희명(1572~1656)의 자는 자순이고 호는 취옹이다. 노계로 동지중추부사과 되었다. 묘비는 현종 1년(1660)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국 가 선대부동지중추부사 취옹송공희명자순지묘 증정부인 진주유씨부좌 라고 되어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03cm, 폭 51.5cm, 두께 11cm이다.

“송국전 묘(宋國錢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17
 시대 조선 숙종 13년(1687)묘갈 건립 숙종26년 묘비건립
 종류 묘



묘는 이사동 윗사라니 마을의 목사공재실 뒤쪽 묘역에 위치한다. 송국전(1595~1649)은 제월당 송봉림의 아버지이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묘갈은 숙종 13년(1687)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송시령리 짓고 김수증이 쓰고 김수항이 전(篆)하였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有明朝鮮) 정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라고 되어있다. 크기는 높이 152cm, 폭 64cm, 두께 28cm이다. 묘 우측에는 권상하가 짓고 이덕성이 써서 숙종 26년(1700)에 세운 묘비가 있다.



“송희갑의 묘(宋希甲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윗사라니마을
시대 조선 숙종 17년(1691)
종류 묘

“송화수의 묘(宋樞壽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3
시대 조선 숙종 23년(1697)
종류 묘

송화수의 묘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절우당 왼쪽 묘역에 위치한다. ((1546~1606)는 세훈의 아들로 호는 청죽당(聽竹堂)이며, 병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묘비는 숙종 23년(1697)에 세워

졌으며, 비문은 이의길이 짓고 송형필이 추가하였으며 김구가 썼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 증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청죽송공화수영노지묘 증정부인 성주이씨부좌(有明朝鮮人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聽竹宋公樺壽英榮老之墓 贈貞夫人 星州李氏附左) 라고 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144cm, 폭 62cm 두께 33cm이다.

“송병수 묘(宋栢壽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3
시대 조선 숙종 33년(1707)
종류 묘

묘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절우당 오른쪽 묘역에 위치한다. 송병수(1537~1626)는 군수 세훈의 아들로 호는 송담이다. 그는 임천 군수를 지냈고 품계가 가선(嘉善)에 올랐다. 묘비는 숙종 33년(1707)에 세워졌다. 비문은 신희이 짓고

송규림이 추가하고, 김상용이 전하였으며, 송상기가 썼다. 비의 전문에는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가선대부행용양위부호군(嘉善大夫行龍衛副護軍) 송공병수지묘(宋公栢壽之墓)라고 되어 있다. 크기는 높이 146cm, 폭 65cm, 두께 30.5cm이다.

“송국사 묘(宋國士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3
시대 일제강점기(1911)
종류 묘



송국사의 묘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절우당 왼쪽 모퉁에 위치한다. 송국사(1612~1690)는 장령 희진의 아들이며, 호는 계담이다. 그는 사헌부 감찰과 고창 현감을 지냈으며,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표는 1911년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송근수가 짓고 송의권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정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경칭참차관(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參贊官)라고 되어있다. 크기는 높이 125cm, 폭 57cm, 두께 25.5cm이다.

“송국보 묘(宋國輔 墓)”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3
종 류 묘



이사동의 은진 송씨 묘역에 위치하고 송국보의 묘는 봉분의 직경이 5m, 높이가 1.5m이다. 상석은 168×102×42cm 크기이며, 봉분과 상석사이에 130×56×22cm 크기의 묘표가 있다. 그리고 묘비는 개석식으로서 그 크기는 개석이 124×85×48cm, 비신이 153×61×34, 비좌가 115×88×35cm이다. 동자상, 문인석은 각기 1기씩 배치되었는데 동자상은 74×24×20cm, 문인석은 168×48×42cm 크기이다.

“송희건의 묘(宋希甲 墓)”



“사우당 송국택(宋國澤)”

송 국 택 1597(선조30)~1659(효종10)
유 적 사우당 학당(四友堂, 동구 이사동)

처음에는 회덕2동의 송촌에 건축되었으나 허물어져 소실되어 1971년 문중에서 선조의 산소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 중건하였다.

조선후기의 문신(文臣). 자(字)는 택지(澤之)이고 호(號)는 사우당(四友堂)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惟)가 회덕에 세거지를 마련한 뒤에 은진송씨들은 번족하게 되었다. 사우당은 쌍청당의 7대손으로 희명(希命, 1572~1656, 號 醉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16세 때 취옹의 재종제(再從弟)인 몽인(夢寅, 1582~1612, 號 琴巖)에게 양자

로 들어갔다. 19세 때부터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고 이어 신독재 김집(金集)에게서 복습하였다. 1619년(光海11) 23세 때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반궁(拌宮)에서 유학했다. 1624년(仁祖2)에는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가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가되었다가 이듬해 정자(正字)로 승진했다.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자 사계가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사우당을 참모관으로 등용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국(史局)에 천거되어 들어가 검열(檢閱)에서부터 봉교(奉敎)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사이에 간혹 주서(注書)로 체직되기도 하였고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여 호조와 예조의 좌랑(佐郎)을 역임하였고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 때에 목릉(穆陵 : 宣祖의 陵)을 옮긴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논의가 일을 맨 처음 발의한 자에게 죄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의논이 둘로 갈라졌다. 사우당이 올바른을 지켜 굽히지 않자 함경도사(咸鏡都事)로 쫓겨났다가 들어와 지평(持平)이 되었다. 지평으로 있을 적에 신독재와 더불어 사친(私親)을 숭봉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다투어 논하다가 다시 쫓겨나 수성찰방(輸城察訪)이 되었다가 다음 해에 문천군수(文川郡守)가 되었다. 잠시 뒤에 신독재가 대사헌으로 임명되자 사양하는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같이 일을 했던 동료가 아직도 쫓겨난 채로 있는데 신이 홀로 무슨 낮으로 다시 사간원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여 드디어 을해년(1635, 仁祖13)에 장령(掌令)으로 불리워졌는데 대궐에 도착하기도 전에 종묘령(宗廟令)이 되었고 다시 무반(武班)의 한직에 임명되었다.



사우당1

병자호란 때에는 궁벽진 곳에 있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섬을 거쳐 겨우 강화도에 들어갔으나 며칠만에 성이 포위되자 민광훈(閔光勳 1595~1659)과 더불어 무기고 앞에서 화약을 맡아두고서는 「이곳이 우리들이 죽을 장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순간에 갑자기 쇠망치로 서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 물으니 원손(元孫)이 나갔다고 하므로 사우당이 민광훈에게 말하기를 「조씨(趙氏)의 한점 혈육이 여기에 있도다」 하며 드디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에 원손을 태우고 가는데 오랑캐 몇 명이 말을 타고 가까이 쫓아오므로 군사들에게 방포하라고 명령하니 적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이윽고 교동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마침 그의 가족들이 길가의 어떤 집에서 머물고 있었으나 그대로 문을 지나치고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섬에 이르러서는 섬 안에서 십 여명의 무리들이 칼을 차고 다가왔는데 사우당이 그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말하니 모두 울면서 먹을 것을 갖추어 영접하였다. 난리가 끝난 뒤 그가 당진(唐津)에서 원손을 모시고 입경하자 그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그리고는 병조와 공조의 참지(參知)를 역임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호남과 호서의 이사를 역임하고 공주목사(公州牧使)가 되었으나 혼인의 혐의로 물러났다.

기묘년(1639, 仁祖17)에는 병조참의로 심양에 사신을 다녀오고 가을에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임명되었다. 다음 해에는 전문(箋文)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2년 뒤에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김제군수(金堤郡守)로 발령받았는데 이 때에 친모와 양모가 모두 돌아갔다. 그 후부터 6년 뒤 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여러 번 바뀌고 다시 임명되기를 거듭하였다. 그가 55세 되던 신묘년(1651, 孝宗2)에 생부가 마침 80세가 되었으므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청하자 임금이 특별히 허락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아깝게 여겨 너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천군수(林川郡守)로 재직할 때에 주상(主上)이 현종(顯宗)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하여 명성왕후(明聖王后)를 책봉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니 이분이 바로 사우당의 외손녀이다. 생부 취옹이 첨추(僉權)로 제수되자 모시고 한양에 들어와 은혜에 사례하였으며 겸하여 대례를 지내고 돌아갔다. 이어 사우당은 형조·공조·병조·예조의 참의를 두루 지냈다. 갑오년(1654, 孝宗5)에 다시 우로운(優老恩)이 있었는데 임금이 그의 생부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임명하고 동지중추부(同知中樞府)를 주었으며 선조(先祖) 3대에게 증직을 내렸다.

사우당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옥천군수(沃川郡守)를 자원하였는데 옥천이 원래 혼조

(昏朝 : 곧 광해조)에서부터 논의가 어그러지고 과장되어 올바른 자들이 곱힘을 당했으나 그가 부임하면서 한결같이 모두 올바름을 펴게 하니 선비들이 옳게 여겼다. 2년 뒤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해 가을에 생부가 작고했다.

기해년(1659, 孝宗10)에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자 사우당이 먼저 자신의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났으며 이때에 병이 더욱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효종의 영전에 곡을 하였다. 병조참의로 있었으나 11월에 들어서면서 병이 급하여졌다. 그러자 임금이 특별히 의약을 보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당은 집안일에는 언급도 하지 않고 다만 「내가 포의(布衣)로 삼조(三朝 : 곧 仁祖 · 孝宗 · 顯宗)에 걸쳐 은혜를 입었으나 티끌만 치도 보답하지 못했으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하였다. 15일에 회현방의 거처에서 돌아가니 향년 63세였다. 임금이 놀라고 슬퍼하여 중사(中使 : 대궐의 내시)를 보내어 호상을 명령하고 죽음을 애도하였다. 처음에는 공주 유성현(儒城縣)의 남소홀리(南素屹里)에 장사지냈으나 14년 뒤에 조교리(俎橋里)의 해향(亥向 :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사우당은 천품이 맑고 명랑하였으며 그릇이 온화하고 단아하여 평생토록 한결같이 순탄하여 절대로 어렵게 하거나 가로막고자 하는 뜻이 없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느긋하며 기뻐하여 늙어서도 하루같았다. 문중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돈후하고 화목함이 한결같아서 촌수가 가깝고 먼 것으로 인하여 사이를 두지 않았다. 사람들과 더불어 말할 때에는 거리를 두지 않아서 모두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논의를 할 때에는 굳세고 간절하며 자신을 바르게 하여 스스로 믿었다. 처음에 대각에 들어갔을 때에는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연달아 쫓겨나 변방에서 고통을 당한 적이 4·5년이나 되었어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자중자애하여 명함하나라도 요직에 보낸 자취가 없었다. 이런 까닭에 그의 벼슬길은 항상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여러번 고을살이를 하였는데 부임하는 곳마다 한마음으로 공평하게 받들어 감히 사사로운 일에 흐려져서 마음에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비록 집안에 간절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 물리쳤으며 스스로 받드는 것이 심히 간략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였다. 언제나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을 임무로 삼으니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두려워 자취를 감추어 고을의 창고가 처음에 부임하였을 때보다 반드시 차고 넘쳤다.

성천(成川)은 실로 재화가 모이는 곳인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재물을 보기를 마치 아

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니 성천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우리 사또처럼 청백한 분은 일찍 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비석을 세워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그가 임천(林川)에서 고을살이를 할 때 당시에 유명하던 재상의 종이 살인을 하여 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 사또들이 감히 처결하지 못했으나 그가 곧 법으로써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함이 없으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했다.

사우당이 몸은 더욱 쇠하고 병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벼슬할 뜻인 없었으나 80세가 된 생부를 위하여 계속 벼슬을 하였다. 그의 효성은 이름이 높아 주변에서 모두 대효(大孝)라고 일컬었다.

중이나 무당을 출입시킨 일이 한번도 없으며 노래를 부르거나 재주를 부리는 것, 장기와 바둑 등의 오락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다만 소나무 사이에 정자를 짓고 선현의 비문과 현판을 구하여 좌우에 두고 홀로 즐기며 게으른 빛이 없었다.

“비파산성(琵琶山城)”

지정번호	시기념물 25호
지정일	1991년 7월 1일
종류	성지(성곽)
소재지	대전 동구 이사동 산18

동구 대별동에서 소호동으로 넘어가는 위해서는 ‘비파치’ 라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산성은 ‘비파치’ 개의 서쪽 해발 509m 성재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산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길쭉한 장방형으로 전체 성벽의 둘레는 약 350m에 이른다.



성벽은 자세가 험한 동벽가 서벽, 북벽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며, 남벽만이 일부분 잔존하고 있다. 성밖의 축조 방법은 내축식으로 되어 있는 북벽4을 제외하고는 모든 편축식으로 되어있다. 내부시설로는 서벽쪽에 폭 3.2m 너비로 성벽이 절단되어 있는 곳이 있어 이 산성의 서문지로 추정되고 있다. 유물은 선조문이 시문된 평기와가 다량 확인 되었다.

한
7

“안동공 종중 재실(월송재)(安東公 宗中 帝室 月松齋)”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31호
지정일	1992년 7월 22일
수량	2동
소재지	대전 동구 이사동 41-7
종류	사묘재실



월송재는 이사동 아랫사라니 마을의 추원재와 담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 사마시와 대과에 급제한 후 금정도 제방, 안동대도휘무 판관을 지낸 월송재 성희건(1572-1633)을 제사하기 위해 지은 재실이다. 송희건의 호가 월송재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송재는 야산을 배경으로 남향하여 사귀식 담장으로 둘러진 일곽의 대지 안에 배치되어 있는 이 건물은 좌우 1칸씩의 익실이 달려 있는 소슬대문의 중문을 들어서면 자연석 기단위에 덩빙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 후 ‘ㄱ’ 자형의 평면으로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건물의 중앙부분에 3칸 통간의 넓은 우물마루의 태청을 깔고 그 좌측1칸에 전퇴가 달린 건너방을 들였고 우측에는 1칸의 옷방과 ~~2~~2칸의 안방, 그리고 1칸의 부엌을 각각 들였다. 가구는 앞. 뒤 평주 위에 대량을 걸고 대량위에 직접 원반형의 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친 3방 보집으로서 주상부에 ‘+’ 자방향으로 장방형의 양봉이 결구되어 있고 집붕은 흘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은진송씨재실 절우당(恩津宋氏 齋室 節友當)”

소재지 대전 동구 이사동 40-7
수량 1동



절우당(節友當)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증리동에 있었던 송남수의 별업이다. 이 건물은 그의 아홉째 숙부 자산군수 송세협이 살던 집이었는데, 28세 되던 명종 19년(1564) 송남수가 인수하여 수축하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를 심었다. 그리고 이 네가지를 자신의 절우(節友)라고 이름 붙였다. 그가 절우당을 지은 뒤에도 별당에는 오랫동안 제영시나 당기(堂記)가 없었다. 절우당(節友當) 안에는 ‘절우당중건기:1993’이 있으며, 상량문을 통해 1991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恩津宋氏 承旨公波 齋室)”

지정번호	시 문화재자료 33호
지정일	1992년 10월 28일
소재지	대전 동구 이사동 41-7
수량	1동
분류	사묘재실



조선시대에 청암찰방(靑岩察訪) 삼가현감(三歌縣監)등의 벼슬을 지낸 임청헌(臨淸軒) 송국보(1602-1662)의 후손이 지은 재실이다.

높은 솟을 대문안에 앞면 2칸, 옆면 2칸의 재실은 중앙에 2칸의 대청과 그 양면에 뒷마루가 달린 온돌방을 들었다. 막돌 기단위에 덩벙 주춧돌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은 홑처마팔작지붕이다. 대청에 추원제(追遠齋)라는 원판이 걸려 있다.

원

이사동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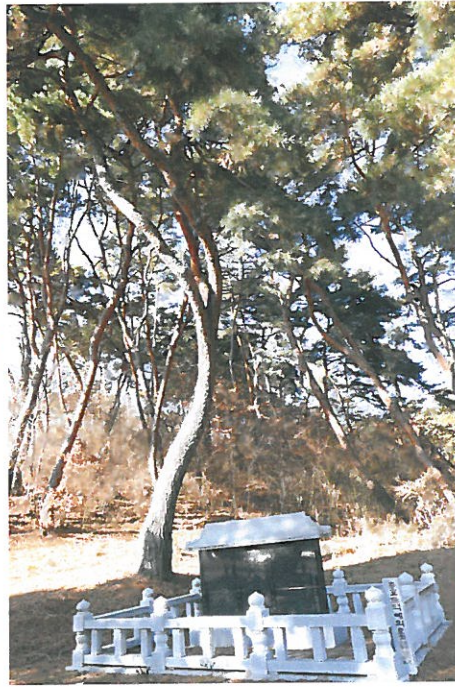
진경아진 우



이사로 89



사동 표지석



금석록간행기념비





이사로 48



이사로 56



이사로 74



KCC창호



남대전풋살장



더존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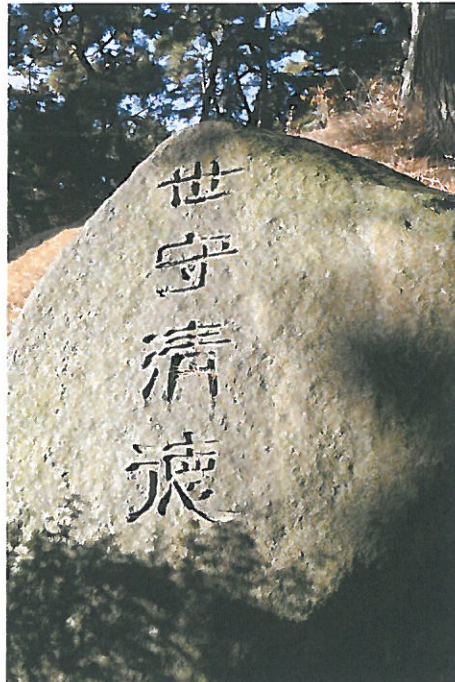
동구나무



한국정밀



비석



세수청덕



송남공산소날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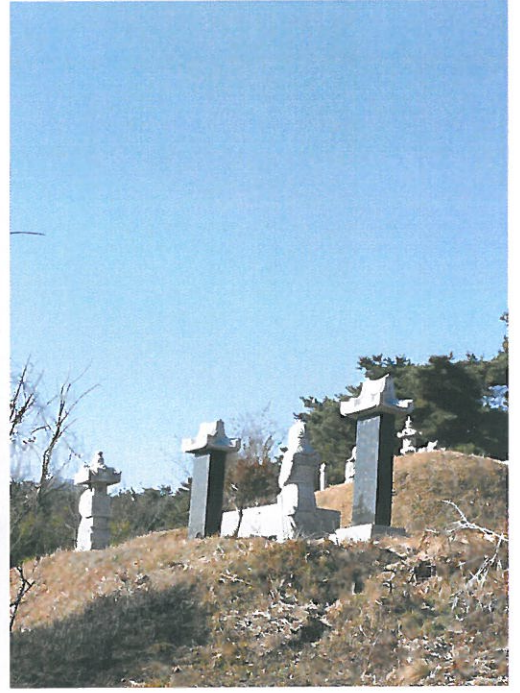
영도문



천연보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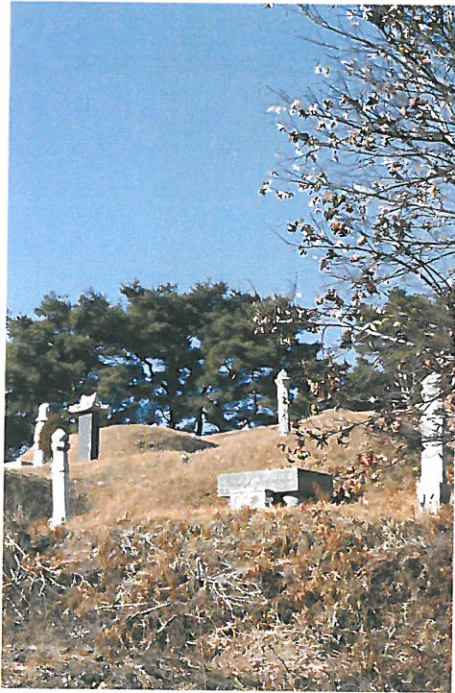
이사(운송)



이사동묘역



학교개 94-13 나사렛집



이사동묘역



이사로 13-183



온누리 요양원



우진전기



이사로 공장



이사로 102



이사로 90-11



이사로 91

소호동(所好洞)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 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조선 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다.

이지역은 새양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 상바우산 안쪽 속에 자리한 지역이라 원래 부르기를속을이라고 부르다가 변하여 소을, 소홀(素屹), 소리라 부르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신완전리(新完田里), 난산(卵山)을 병합하여 소호리라 하고 대전군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행정동은 산내동이다. 소호동에는 은진송씨가 다수 살고 있다.

알뫼 마을 뒤에 있는 산이 달모양으로 생겨서 옛날 이곳을 들린 지관이 이곳에 묘자리를 보러왔다가 여기 산이 알을 품고있는 명당자리라 하여 알뫼라 불렀다 한다. 알뫼는 산이 소리 남동쪽 물아래에 있고 알과 같이 둥그스름하며 알뫼 마을은 난산이라고 부르는데 알뫼산 옆에 있다.

어청골 마을은 온통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어서 늘 푸른 소나무의 고을 이라 하여 어청골 이라 부른다.

신완전(新完田) 동구 소호동의 구완전 부락은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피난와서 무사히 목숨을 건진 지역이고 신완전은 그후 정유왜란 때 무사하였다는 뜻에서 피난처(避難處)로 알려진 곳이다. 소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홀 알뫼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속울, 소울, 소리, 호홀이라 부른다. 상바우산 안쪽 산으로 가린 그 안에 있는 마을로 인심 좋고 산수 좋은 마을이다. 산속에 마을이 있다 해서 속울이라부르던 것이 변해서 소홀이라 부른다 한다.

각골 소호2구 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강바위산 소호동과 구도동의 경계에 자리한 산이다.

거미허리산 소호동 대끝능선 옆의 산등성이다. 여기 무덤에 자손이 절을 하면 거미줄에 걸려 화를 당한다하여 아래의 또랑에서 절을 올렸다 한다.

구드메날망산 소호동에서 구도동으로 넘어가는 산등성이다.

꼭지머리골 소호동 알미산 동쪽에자리한 골짜기이다.

넘바골 소호동 꼬지말골짜기 서쪽과 알미산 뒤 골짜기가 똑같이 넘버 골이다.

당기뫼골 소호동 푯대 날망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대끝능선 소호동 거미허리산 옆에 자리한 산등성이다.

동네마당 소호동 큰 골짜기 옆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놀이동산이다.

두리봉산 소호동 신완전마을 북쪽에 자리한 산봉우리다.

채봉골 대별동 지프재산 서쪽에서 소호동으로 흘러내린 골짜기로, 죽은시체를 나무위에 올려놓아 살이 다 썩어 없어지면 뼈만 간추려 장사 지내는 풍습이 행해지던 골짜기다.

떡갈봉 소호동 알미산 북서쪽에 자리한 산이다.

떡뱅이골 소호동 큰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묵능골 소호동 터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범바위 소호동 동쪽 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불소시계말능선 소호동 불당터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산등성이다.

비파골 소호동 소리마을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지프재고개 소호동에서 대별동으로 가는 고개로 비파줄을 당기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고, 비파산아래 골짜기와 재가 깊어 지푸재라 했다고 한다.

- 사라니재 소호동 새원전마을에서 사리니로 가는 고개이다.
- 살미기 소호동 금옥이골짜기 동편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삼바골 소호동 죽날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 이다.
- 새뜸 소호동 증골 골짜기 앞에 자리한 마을이다.
- 샘골 소호동 불당터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성뚝 소호동 숯고개 안쪽에 남아있는 옛 성터다.
- 소리마을 소호동 알미산 북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 소호리 둠병 소호동 마을 앞에 자리한 연못이다.
- 솔미모퉁이 소호동 알미산에서 소호1구마을로 도는 곳에 자리한 모퉁이다.
- 쇠골 소호2구마을 동편 골짜기이다
- 수굴골 소호2구마을 동편 골짜기이다.
- 수리램이골 소호동 고모재고개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수리램이고개 소호동 수리램이골짜기를 넘어,충남 금산군 진산면으로 가는 고개다.
- 숙글재고개 소호동 북동쪽 자리한 고개이다.
- 숯고개 소호동 신원전마을 에서 장척동 으로 가는 고개로 숯을 굽을 곳이 있었던 곳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 아래소호들 소호동 알미산 입구에 자리한 들이다.
- 아랫소리마을 소호동 소리마을 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 알뫼산 소호동 동남쪽에 자리한 산으로 닭이 알을 품은 모습이라 한다.
- 알미골 소호동 서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 알미다리 소호동 알미마을 앞 다리이다.
- 알미천 소호동에서 삼괴동으로 흐르는 냇물이다.
- 얼거리골 소호동 금옥이골짜기 앞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은행나무날 산 소호동 동쪽의 큰 은행나무가 서 있는 산등성이다.
- 응골 소호동 덕골마을 뒤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작은구드메날망 소호동 남동쪽에 자리한 작은 산마루이다.
- 작은새골 소호동 제피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죽날산 소호동 알미산 남쪽에 자리한 산마루다.
- 즘디골 소호동 꽃재날산 동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청룡뿌랭이산 소호동 수리램이골짜기 서쪽의 산으로 호랑이가 많았다고 한다.

큰골마을소호동 흠달이들능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마을도 같이 부른다.

큰새골 소호동 작은새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큰 골짜기이다.

큰웃골 소호동 금옥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큰 골짜기이다.

터골 소호동 중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턱골마을 소호동 숯고개 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평풍바위 소호1구마을 앞에 자리한 바위다.

꽃대날망산 소호동 작은구드메날망산 옆의 산으로, 깃대가 산 위에 있었다.

흠달이들 소호동 금옥골오른쪽에 자리한 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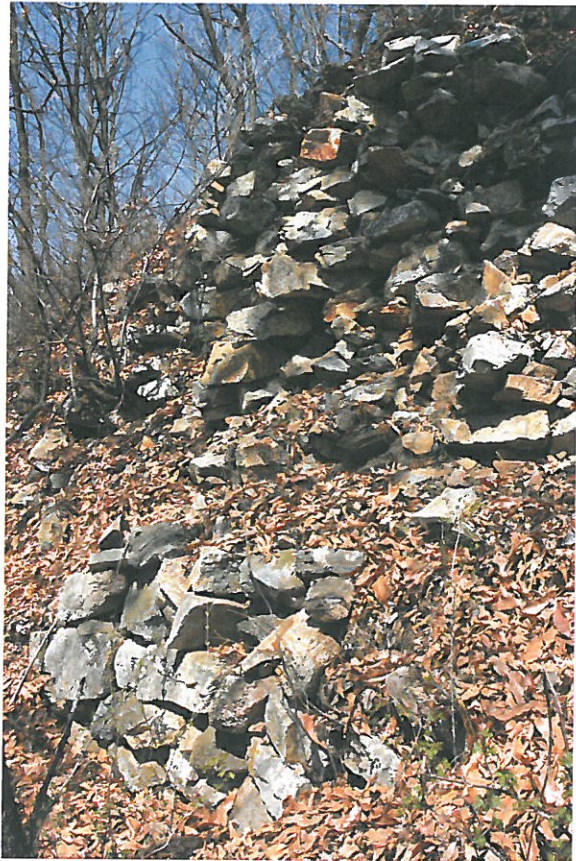
소호동이 품은 문화재

“소호동산성 end 비파산성(琵琶山城)”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18
시대	삼국시대
종류	성(보루) 대전시기념물 25호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5호.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에서 소호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파치고개를 넘어야 한다. 이 고개 북쪽 표고 300m의 산위에 테뫼식(산 정상을 둘러 쌓은 성)으로 쌓은 석축산성이다.

고개이름을 따서 비파산성 또는 동네이름을 따서 소호동산성(所好洞山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비파치성(琵琶峙城)은 대전 남쪽 약 2리(里)되는 산위에 있는 석루(石壘)로서 둘레 약220칸(間)”이라 하였고, 《문화유적총람》에는 “비파산성은 산내면 이사리와 대별리 그리고 소호리의 경계에 있는 산에 석축으로 축조한 성으로 모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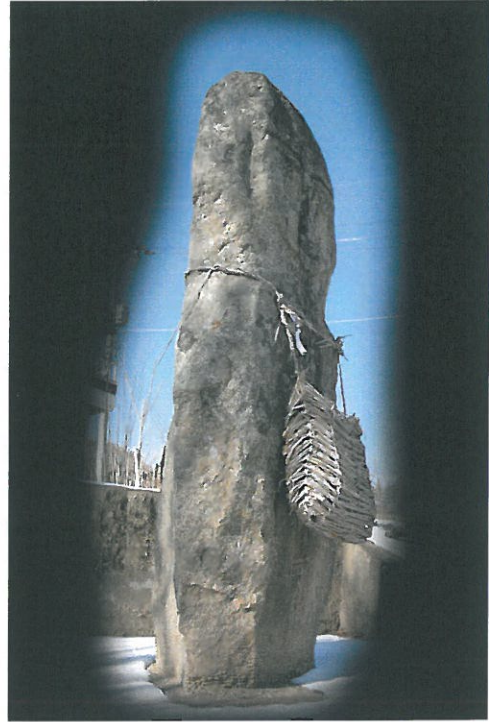
비파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허물어져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서남쪽에 문지가 있었던 것 같고 봉수대도 있었다.”고 한다. 이 성에는 백제 토기편과 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현재 출입하는 남문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너비는 2.2m이다. 이 산성은 보문산성(寶文山城)과 동쪽에 있는 능성(陵城), 삼정동산성(三丁洞山城)과 연계되는 산성으로 판단된다.

“윗소호 장승(거리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산4 윗소호
시대	삼국시대
종류	장승

음력 정월 열 나흘날에 마을 안의 암자에서 주관하여 ‘지푸재고개’ 위에서 있는 장승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본래 이 고갯마루 위에는 서낭나무와 돌무더기가 있었으나, 1976년도에 도로를 내면서 돌무더기를 없앤 후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잦았다. 암자보살의 말에 따라 1976년 중반 고갯마루에 나무 장승을 제작하여 세웠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신작

로를 다시 포장하게 되면서 나무 장승도 없어졌다. 그 후 현재의 화강암 장승을 세웠다. 장승은 높이 245cm, 둘레 102cm로, 석공장에서 제작한 사각 기둥형태의 장승이다. 남 장승의 몸통에는 천하대장군, 여장승의 몸통에는 지하여장군이라 음각되어 있다. 이빨을 드러낸 채 귀면(鬼面)의 형상을 하고 있다. 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신현암의 보살이 길일로 택하는데, 보통 음력 정월 열 나흘날에 지낸다. 신현암의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데, 보살이 제사를 주관하므로 별도로 제관을 선출하지 않는다. 정월 초순에 제사 날짜가 잡히면 주민들이 가서 정성껏 시주를 한다. 장승도 신자들의 시주로 건립한 것이다. 통돼지·시루떡·삼색실과·배·사과·세 가지 나물·메·탕·술(정송)·통명태 등을 올린다. 제사를 지낼 때는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석할 수 있다. 장승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보살이 주관하여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마친 후에는 개인이 나서서 돈을 놓고 개인 치성을 드린다.



소호동 풍경



마을 전경



소호동 버스정류장



아랫소리 전경



아랫소리 전경



신완전 전경



소호동 입간판



마을안길



대웅전



마을회관오름



산서로1089-8



산서로1091



산서로1092-2



산서로1093-6



산서로 1326



산서로 1326길 19



산서로 1326길 21-11



산서로 1326길 21-12



산서로 1326길 21-15



산서로 1326길 30



산서로 1374길 71



산서로 1374길



산서로 1374길41-1



산서로 1374길 41-10



산서로 1374길 41-9



산서로 1374길 46



산서로 1374길 50



산서로 1374길 51



산서로 1374길 67



소호2동 마을회관



천마철



소호동 제1경노당



소호동 입구



송림사



송림사입구



송림사



신완전 전경

장척동(長尺洞)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다.

산의 모양이 가늘고 길게 뻗어 마치 긴 자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들은 때로 새 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지역에는 북쪽으로 새재가 있고 그 아래가 되므로 원래 새재 또는 장척편이라고 부르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 에는 회덕현에 속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

편때 소호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척리라 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그후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할 때 대전직할시 동구에 편입되었다. 행정동은 산내동이다.

도래말 새재 서쪽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다. 모퉁이를 돌아가서 마을이 있는데 두레하는 새끼처럼 꼬여 있다고 해서 두레말 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도래말 이라 부른다고 한다.

안말 새재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 앉은 마을이라 해서 안말, 내촌이라 부른다.

그머기 새재 동남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그머기 라고 부른다. 골짜기에 마을이 있고 옛날에 숲이 우거져 어두컴컴한 음지 때가 많다 해서 그머기 라고 부른다 한다.

새재 도래말 동쪽에 자리한 마을을 새 재 또는 장척(長尺)이라고 부른다. 새 재 북쪽 아래에 있으므로 산 이름을 따라 새 재라고 부른다 한다. 산 새 재는 들새가 많이 날아드는 산이라 한다.

각골 장척동 방적골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구라날망(마루) 장척동 북쪽에 자리한 산마루다.

그머기마을 장척동의 중심 마을로, 동구 산내동에서 중구 금동으로 이어지는 지내가 높은 마을이다. 깊은 산속이라 항상 어둡침침한 음달로 있고, 근처 금강에서 금이 나와 그머기란 이름이 붙여 졌다한다.

금동고개 장척동 도래말마을에서 금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금옥골 장척동 알외 마을 동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금이기골 장척동 각골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다름비야산 장척동 남쪽에 자리한 산으로 다람쥐가 많다.

도람말마을 장척동 아래말마을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도래말마을 장척동 새재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모퉁이를 [↓]돌아가야 나오는 마을이다.

두루봉산 장척동 절골골짜기 위에 자리한 산이다.

새재마을 장척동의 가운데 부근에 자리한 마을이다.

성재고개 장척동 안산의 산마루에 있는 고개로, 옛 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성특고개 장척동에서 중구금동으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아래말마을 장척동 윗말마을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안말(내촌)마을 장척동 새재 마을 안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알외마을 장척동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어둡골 장척동 절골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어리기골

- 어리기골 장척동 두루봉산 옆과, 금이기골짜기 동남쪽의 골짜기 같은 골의 얼거리골이다.
- 웃골 장척동 우골골짜기 부근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다. ?
- 윗말 장척동 우골짜기 부근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다.
- 윗골 장척동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짜기이다
- 은골 장척동 얼거리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응골 장척동 어둡골 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작은골 장척동 큰 골짜기 옆에 자리한 작은 골짜기 이다.
- 절골 장척동 동쪽 우골골짜기와 증골골짜기 사이에 각각의 절골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마다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찬물샘골 장척동 세거리에 자리한 샘이다.
- 큰골 장척동 윗골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큰 골짜기이다.
- 큰골고개 장척동에서 큰골짜기로 가는 고개이다.
- 큰웃골 장척동 작은 웃골짜기 오른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꽃대날망 마루 장척동 뒷골 골짜기 북쪽의 깃대가 펼쳐있던 산마루이다.

창척동이 품은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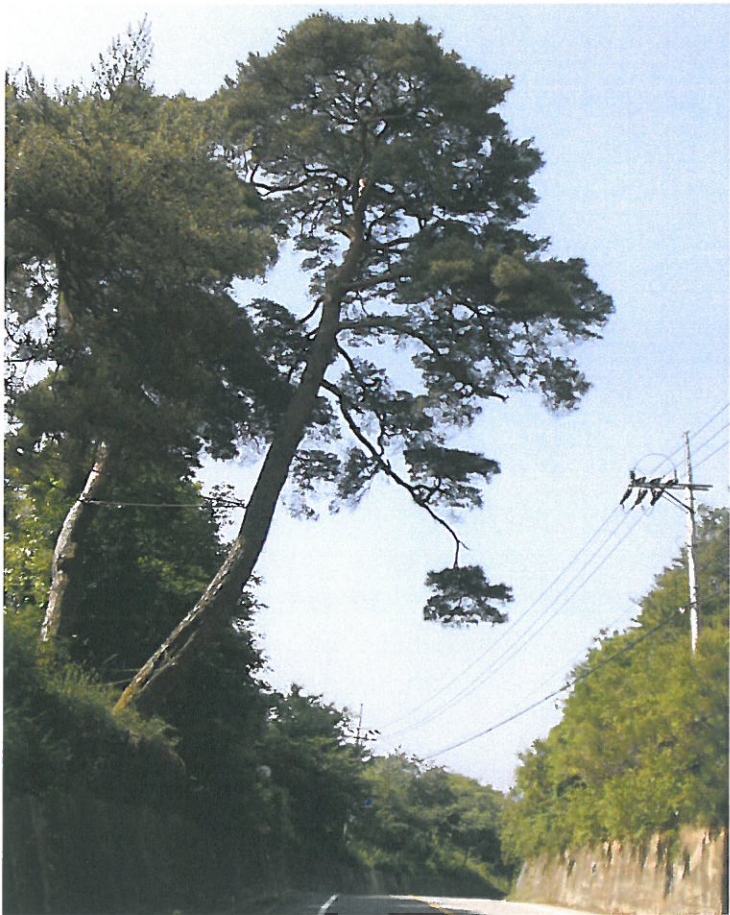
“새재 동구나무(정자나무제)”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동구 장척동 247 새재
 시 대 1968년
 종 류 신목

윗새재에서 아랫새재로 가는 길의 모퉁이에 동구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교목의 느티나무가 있었으나 1967년에 고사하여 1968년에 같은 종의 느티나무를 심었다. 지금도 이곳을 지



나려면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지나간다고 한다. 정자나무제는 부정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성황제를 마치고 제관이 돌아오면 주민들이 풍물을 치면서 함께 동구나무로 나간다. 제사는 성황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행되는데, 추위를 달래기 위해 옆에 불을 놓는 것만이 다르다. 제사를 끝내고 간단히 음복하고 제관집으로 가서 음복한다.



“새재 소나무(성황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장척동 산 15-2 새재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신목)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성황제를 지내는데, 장척동에서 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소나무가 바로 제당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성황당이 있었으나, 1970년대 말엽에 도로를 확장 포장하면서 돌무더기는 사라지고 소나무만 남게 되었다. 예전에는 5그루가 있었으나 고사하여 3그루만이 남아 있다. 마을에서 설을 쇠고 생기복덕을 보아 운이 닿고 깨끗한 사람으로 제관 한 명을 선출한다. 제비는 잡저바다 돈이나 쌀로 추렴을 하

집집마다

여 마련한다. 제관이 대전 중앙시장으로 나가 제물을 장만해오는데, 흰무리·삼색실과·명태포·청주·돼지머리 등을 올린다. 제기는 제관집의 것으로 깨끗하게 씻어 사용한다. 오후 5시 즈음이 되면 제관 내외만이 성황당으로 간다. 짚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 후 제관이 헌작 후 재배한다. 축문은 읽지 않으며, 성황소지와 만동소지만을 올린다. 예전에는 군에 간 사람들과 대주 소지도 올려주었으나 제사가 간소화되면서 모두 중단되었다. 제사가 끝나고 제물을 떼어놓으면 서로 먹으려고 줄달음을 쳤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떼어놓고 간단하게 음복을 한 후 하산한다. 3그루 모두 높이 12m 내외, 지름 1.6m 내외이고, 수령은 200년 정도이다.

장척동 풍경



장척동 전경



버스승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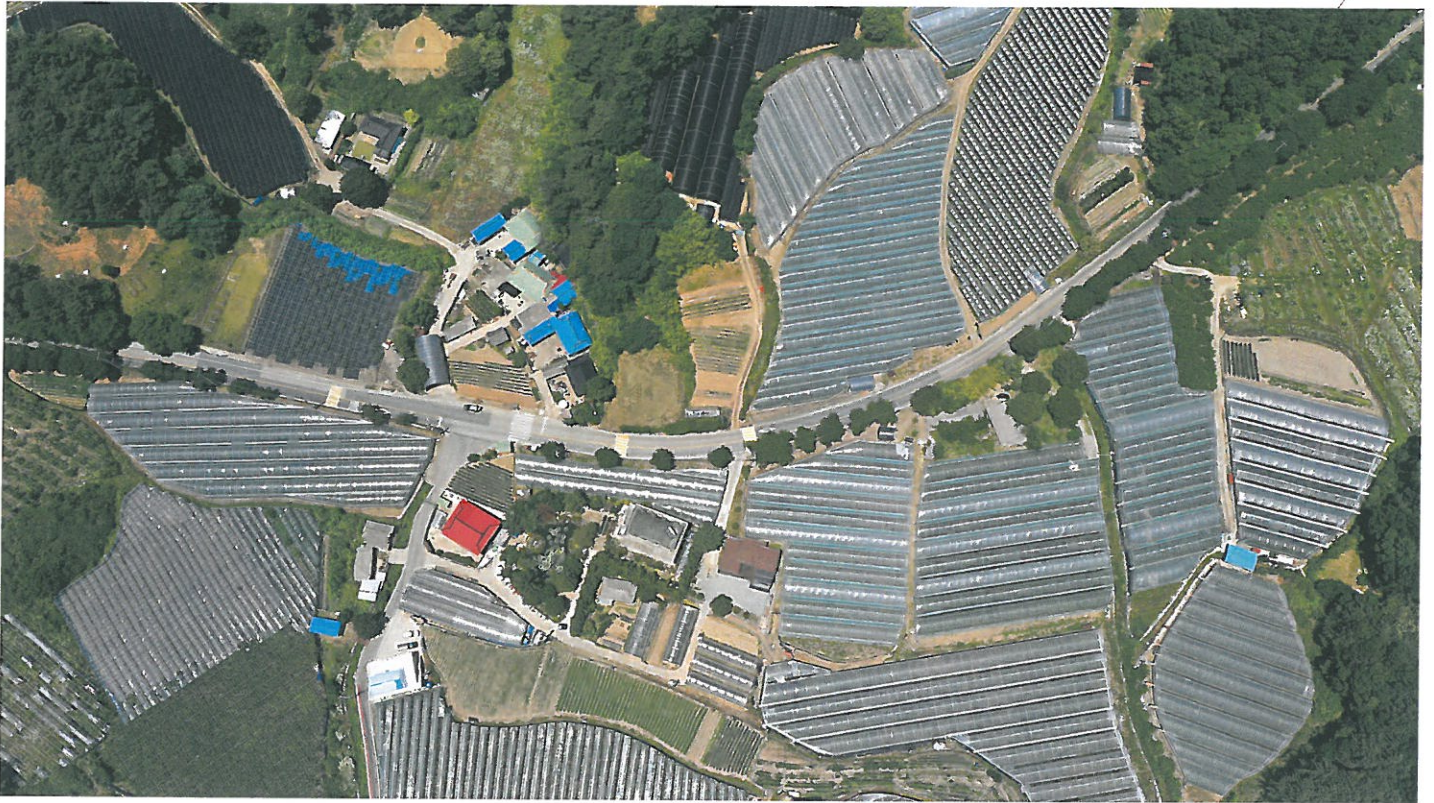
마을회관



안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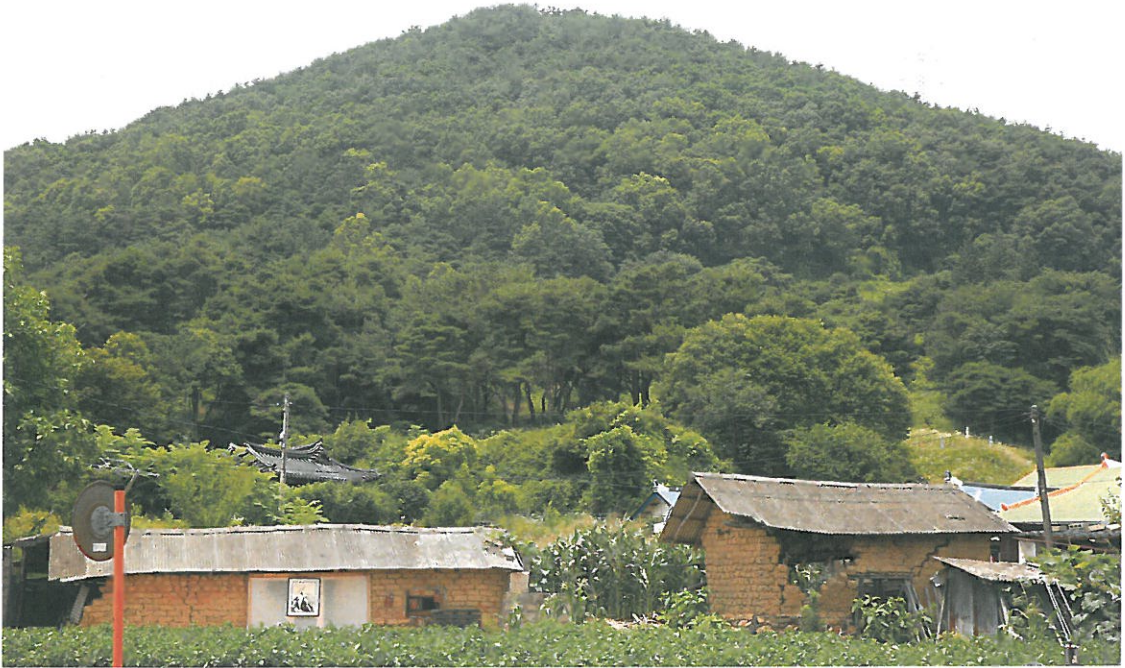
도래말, 안말 전경



장척동 전경



장척동 마을



도래말



도래말



산서로 1089길 12



산서로 1089길 5



산서로 경계(고개)



산서로1089길 18



산서로 1089길 11



산서로 1089길 65



산서로1093



장척동 마을전경



장척동 마을표시



장척동



장척동



장척동



장척동



장척동



장척동



장척동



장척동 전경



폐가

낭월동(朗月洞)



낭월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 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옥토망월(玉兔望月)의 명당이 있다 하여 망월낭이, 만월낭리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낭월동이라 불려오던 지역이다. 낭월동은 아름다운 달이 강에 잠기는 미월침강(美月沈江)의 명당자리가 겹치는 곳이라 한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 (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그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외남면(外南面)의 낭월리, 대성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덕군 산내면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 할 때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內洞)이다. 이곳에는 은진송씨 집성촌이 있다.

호랑이굴 벼락바위 밑에 있는 굴을 호랑이 굴이라 부른다. 일장산에 자리한 호랑이가 여기에도 살고 있었다 하는데 호랑이가 살았다 해서 호랑이 굴이라고 부른다 한다.

삼형제굴 어덩이굴 옆에 있는 골짜기를 삼형제 골 이라 부른다.이 골짜기에 삼형제가 의좋게 살았하여 삼형제 골이라고 부른다 한다.

낭월(朗月) 산세가 좋아 옥면방월형(玉免望月形)의 명당이 있다는 곳이다. 여기엔 윗낭월, 아랫낭월, 안낭월로 마을이 번져나갔으나 방월하면 명당의 고을로 불리진다.

산정말 낭월동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다. 산중턱에 있다 해서 산정말 이라 부른다 한다.

벼락바위 소년원(少年院)뒤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 부른다. 큰 바위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데 벼락을 맞아 바위가 갈라졌다 하여 벼락바위라 부른다 한다.

동구나무재 낭월에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동구나무재라 부른다. 여기엔 오래된 동구나무가 있는데 옛날엔 소금장수들이쉬어 가던 고개라고 한다.

꽃밭골 갈마봉 밑에 있는 골짜기다. 꽃이 많이 피는 골짜기라 꽃밭 골 이라 부른다 한다.

곤룡산(袞龍山) 동구 낭월동과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 경계에 있는 산을 곤룡산이라고 부른다. 산 높이가 327m로 산의 모양이 곤룡과 같다하여 곤룡산 이라고 하고 옥천과 소동의 굴을 곤룡터널이라고 한다.

갈미봉 낭월동과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경계에 있는 산이 갈미봉 산이라 부르는데, 높이가 361m이고 그 산 모양이 갓모와 같다하여 갈미봉, 갈미산 이라고 부른다.

가는골 낭월동 식장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다.

가는골 날망(산) 낭월동 식장산 옆 가는골 골짜기에 자리한 산 날망이다.

가는내고개 낭월동에서 세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재얼덩이골 낭월동 질골 골짜기 옆의 가재가 많았던 골짜기이다.

골령이(골룡재, 곤룡티) 낭월동 동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골령골 낭월동 동남쪽 골령이고개가 자리한 골짜기로 한국전쟁당시 수천여 명의 선량한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된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람의 뼈로 뒤덮히는 골령의 골짜기가 될 것을 미리 예견한 땅이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꽃밭골 낭월동 갈미봉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다.

꽃밭골모랭이(모통이) 낭월동에서 구도동으로 넘어가는 모통이 이다.

- 동구나무고개 안남월동에서 충북 옥천군 군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등골 낭월동의 호래 사골 골짜기 서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 망둑거리 윗 낭월과 아랫 낭월이 이어지는 다리 길이다.
- 배나무골 낭월동 ^산성싼날망 고개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많았다.
- 벼락바위(벼락바위) 낭월동 곤룡재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아 갈라져있다.
- 새질래기골 낭월동 솔 웅덩이 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 샘골 낭월동 망둑거리 골짜기 좌측에 자리한 작은 골짜기이다.
- 삼번덩이 낭월동 질골 골짜기 안에 자리한 샘이다.
- 성싼날망고개 낭월동에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이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 솔웅덩이골 낭월동 성싼날망 고개 오른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 싸리골 낭월동 아랫낭월 마을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어덩이골 낭월동 안남월 뒤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장들골 낭월동 호래사골 골짜기 북 ^이에 자리한 마을이다.
- 지치밭골 낭월동 안남월에 자리한 골짜기로 약초로 쓰이는 지치가 많이 있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진골(짓골)고개 낭월동 윗낭월 뒤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 풀뭇골 낭월동 곤룡재로 가는 곳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하리골 낭월동 아랫낭월마을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호랑이굴골 낭월동 풀뭇골 골짜기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호래사골 낭월동 곤룡재고개 북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학살했는데요. 미군이 운전하는 미군트럭에 재소자들을 싣고 갔고, 미군의 감시 하에 미군이 학살 장면을 촬영해 본국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곧 이어 7월 6일부터 3차 학살이 이어졌다. 얼마나 지옥같은 상황이었을지 그 끔찍함에 몸서리쳐진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당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1951년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그림을 그렸을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차에 1400명, 2차에 1800명, 3차에 1700명 등 모두 49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미군 보고서에는 7월 첫주 3일동안 1800명을 처형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영국인 기자의 기사나 여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대 7000명의 민간인이 전쟁 시기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학살은 반대로 북한이 점령하면서 우익 세력에도 똑같이 가해졌고, 북한이 북쪽으로 후퇴한 후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힘없는 민간인이 다시 국가 권력에 의해 부역자란 이름으로 희생되었다.

민간인 학살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은 주검들이 암매장된 곳이다. 산내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의 노력에 의해서이다. 한 언론인의 노력이 아픈 역사, 하지만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젠 진실을 담담하게 직면하며 서로 화해와 위로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끔찍했던 역사라 다시 생각하기 싫다고 외면하기에는 너무도 상처가 깊고 크고 어렵다. 진실을 알고 화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과정을 거쳐야 깊었던 상처에 새 살이 돋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내 골령골 1차 학살 현장은 2007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고, 광범위하게 파묻힌 2차, 3차 희생자 수천 구 유해의 위치를 찾는 것도 많이 어렵다고 한다. 꾸준히 진실을 알고자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산내 골령골에서 시민들이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낭월동이 품은 역사

“산내 골령골의 한”



산내 골령골 학살현장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이 소련을 등에 업고 무력으로 남침하자 대전형무소에서는 재소자 1400명을 총으로 쏘 죽이고 4km 떨어진 산에 매장했다고 하는데, 직접 산내 낭월동으로 끌고 가 현장에서 처형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좌익 인사 등 국내 정치범도 있지만 제주 4.3으로 끌려온 제주도민들도 있었고, 공산주의 단체에 가입한 일반 재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인 보도 연맹원 같은 예비 검속자도 ‘예방 학살’에서 학살당했다. 7월 1일에 해산 명령에 따라 형무관들이 피난을 갔다는 증언으로 보아, 1차 학살은 보도연맹원을 위주로 6월 28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학살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2차 학살에는 정치범, 제주 4·3 관련자, 여순사건 등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를 끌고가

낭월동 풍경



낭월동 전경



남월동 전경



곤룡터널



관음사



대산학교



동부새마을금고



어린이공원



묵과 보리밥



산내 119안전센터



산내 행복복지센터



산내농협



산내농협 뒷골목



산내로 1287



산내로 1308



산내로 1787길



산내 종합복지관



산내 주공아파트



산내 초등학교네거리



산내초등학교 후문



산내초등학교



산내 파출소



산내 행정복지센터



석천로 104-2



지역아동센터



우체국



윤씨네 도배방



이편한세상아파트



오크란데



해성철학관



효광원

구도동(九到洞)



구도동(九到洞)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豐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다.

이지역은 옛날 과거에 급제하고 홍패(紅牌)를 타 가지고 도문(到門)한 사람이 사람이나 되므로 구도문(九到門)이라 불렀었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외남면(外南面) 대별리(大別里) 일부와 응전리(應田里)를 병합하여 구도리라 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

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었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이고 은진송씨가 많이 거주하는 동네다.

그리고 구도동의 옛마을은 물류단지 조성으로 대부분 철거되고 몇가구만 남아있다.

갈골 구도동 사기점골 골짜기 동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고쟁(골) 구도동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교부랑재(고개) 구도동 구도리마을 동남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논골 구도동 산막골 골짜기 오른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달갈산 구도동 남쪽에 있는 산으로, 그 생김새가 달갈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덕산 구도동 서쪽에 자리한 산이다.

동쪽골 구도동 동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구도동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바깥말 구도동의 바깥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번섯골 구도동 바깥말 마을 위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번숙골 구도동 동쪽 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비락박골 구도동 사기점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사래골 구도동 논골 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산막골 구도동 작은 계비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세천들 구도동 북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상바위(새암바위) 구도문이 뒤 서쪽 산에 있는 큰 바위를 상 바위라 부른다. 바위 모양이 새암처럼 생겼다 해서 상바위, 새암바위, 강암이라 부른다 한다.

상바위산 구도동과 소호동의 사이이에 있는 높이 368m의 산이다.

숲밭기산 구도동 동쪽에 자리한 노송과 참나무가 우거진 작은 산이다.

안골 구도동 달갈산 남서쪽가, 내동의 위쪽으로 같은 이름의 골짜기가 있다.

안말 구도동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앞골산 구도동의 서쪽에 자리한 산이다.

앞들골 구도동 사기점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앞또랑(내) 구도동 앞을 지나는 작은 개울이다.

연자방아터 구도동 회관 좌측에 있는 연자방아터이다.

작은계비골 구도동 앞골산 아래 큰계비골 골짜기보다 작은 골짜기이다.

큰계비골 구도동 앞골산에 닭갈비 모양으로 들어 앉은 골짜기이다.

큰골 구도동의 대전천 건너 편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골 ←

향박골 구도동 앞골산 봉우리 부근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향

향새울들 구도동 사기점골 골짜기 남쪽의 향새가 많았던 들이다.

안말 구도문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쪽에 자리해서 안말이라고 부른다.

구도문 안말 근처에 있는 마을이다. 송국보(宋國輔)라는 학자며 명신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그 가문에서 아홉사람이나 과거에 급제하고 흥패를 들고 돌아왔다 하여, 아홉 사람 문을 두들긴 빛나는 마을이라 해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마을 이름이라고 한다.

상바위 구도문이 뒤 서쪽 산에 있는 큰 바위를 상 바위라 부른다. 바위 모양이 새앙처럼 생겼다 해서 상바위, 새앙바위, 강암이라 부른다 한다.

사기점 사기점 뒤에 절이 있었던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사기점 골이라 부르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사기점이라 부른다. 안말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엔 사기점이 있었다 한다.

빈대절터 안말 북쪽에 빈대절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절터가 하나 있다. 옛날빈대가 들끓어서 절을 태웠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절 터를 빈대절터라 부른다.

바깥말 구도문이 바깥에 있는 마을이다. 구도문이 바깥말 길가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바깥말이라고 부른다 한다.

상바위산 구도동과 소호동 경계에 있는 산을 상바위산 있다. 산의 높이는 368m고 산형(山形)이 새앙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 산이라 상바위 산이라고 부른다.

할미봉 구도동과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와 경계에 있는 산을 할미봉산 또는 수리봉이라고 부른다. 산의 높이는 430m이며 산의 모양이 수려하다 하여 수려봉 또는 할미봉이라고 부른다.



마을표시



경노당



구 버스종점

구도동 풍경



바깥밭전경



물류단지



폐가옥



구도 대전천



구도교



다리밑 집



동방식품



폐가옥



중부우편물류센터



안말 전경



팽나무 수변공원



버스승강장



아름다운복지관

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할 때 대전직할시에 편입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內洞)이다.

공주말은 삼괴정(三塊亭)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회덕군외남면, 서쪽은 공주군 산내면이라 하였다 하는데 여기는 공주군의 끝쪽에 있는 땅이라 하여 공주말, 공주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달령(馬達嶺), 혹은 머물령 이라고도 부른다. 마달리 남쪽에 있는 높은 고개를 마달령이라 부른다. 마달산(馬達山) 밑이 되는데 마달리에서 금산군 추부면 용호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백제 때 백제군사들이 진을 치며 말을 달리며 나라를 지키던 재라 한다. 마달령재 아래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도 마달려 아래에 있다 해서 마달촌(馬達村)이라고도 부른다.

덕산말(德山末)은 송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덕산 밑이 되는데 조선시대 회디??, 송촌과 편재되어 있다 하여 회덕의 덕자와 사냥 많은 끝 동네라 하여 덕산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합쳐 덕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소룡골은 소룡산(巢龍山)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이 자리를 잡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하여 소룡골 이라 부른다 한다. 여기엔 위소룡골과 아래 소룡골이 있는데 소룡골 위 아래에 있는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여문고개(口門)는 마달령 동북쪽에 위치한 고개를 여문고개라 부른다. 마달리에서 금산군 추부면 망월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고개입구에 김재만의 효행비 정각을 세운 다음부터는 정문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고개가 장구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사가*

닭재 덕산 동쪽에 있는 고개를 닭재라 부른다. 닭의 모양같다 해서 닭산, 아래에 있는 고개인데 옥천군 군서면 논골로 넘어가는 고개다. 옛날부터 마을에 *기꺼운* 일어 생길 때는 닭산에서 닭이 울고, 마을에 조해(早害)가 들 때는 닭산에 *노* 나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한다. 그래서 닭산엔 산신령이 있다 해서 마을에서 받드는 산이고 닭재에 성황당도 있었다 한다. *스*

송촌(宋村) 삼괴정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송씨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이룩한 마을이며, 송씨들이 많이 사는 고을이라 하여 송촌이라 부른다.

점말 옛날에 웅기점이 있었다 해서 점말, 침촌이라 불렀다. 송촌 옆에 있는 마을이다.

약샘 삼괴동 하천에 반달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에서 여름엔 찬물이 나오고 겨울엔 따뜻한 물이 나와서 약천(藥泉)이라 불렀다 한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다.

소룡산(巢龍山)은 삼괴동과 장척동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산의 높이가 368m로 산의 모양이 용과 같다고 해서 소룡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국사봉(國師峰) 동구 삼괴동과 금산군 추부면과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경계에 있는 산을 국사봉 이라고 한다. 산 높이가 509m의 산으로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의 명당이 있는 산이다.

마분산(馬墳山) 동구 삼괴동 공주말 북쪽에 있는 산을 마분산(馬墳山) 이라고 부른다. 산 높이는 242m로 산 위에 큰 무덤이 있다하여 마분산 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진다.

갈매날등 삼괴동 앞산의 서쪽에 자리한 능선이다.

삼괴동(三槐洞)



삼괴동(三槐洞)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삼괴동은 느티나무 정자 세 그루가 있으므로 삼괴정(三槐亭)이라 부르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룡리(巢龍里), 마달리(馬達里), 소호리(所好里) 일부와 외남면 덕산리를 병합하여 삼괴리라고 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

- 경골삼괴동 점말마을 뒤편의 골짜기이다.
- 경골또랑 삼괴동 경골 골짜기에서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내 이다.
- 구레논들 삼괴동 하소롱골마을 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 그물골동골 삼괴동 상소롱골 마을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금 방앗간터 삼괴동 찬샘골샘 앞에 자리한 터로, 예전에 금광에서 캐낸 금을 고르던 곳이다.
- 금산데이산 삼괴동 송촌마을 앞에 자리한 산이다.
- 꼬부랑고개 삼괴동에서 충북으로 가는 골짜기 고개로 고개가 꼬불꼬불하다.
- 달은굿들 삼괴동 황골 골짜기 부근의 들이다.
- 대모랭이 거리 삼괴동 머물령고개 왼쪽 산비탈 길이다.
- 대모랭이 양달거리 삼괴동 대모랭이 거리의 햇볕이 드는 쪽의 산 비탈길이다.
- 도끼잡 거리 삼괴동 송촌마을 앞산 끝에 자리한 모퉁이 길이다.
- 동산굴몽골 삼괴동 하소롱 마을 동쪽의 골짜기이다.
- 뒷동산 삼괴동의 공주말 마을 뒷산이다.
- 말랑산 삼괴동 앞쪽에 있는 산이다.
- 머들령골 삼괴동 머들령고개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머들령마을 삼괴동 머들령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다.
- 머들령 안골들 삼괴동 머들령마을 동쪽에 자리한 들이다.
- 먹뱅이골 삼괴동 공주말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모롱고지(모롱이) 삼괴동 소롱골마을 입구의 모퉁이이다.
- 뫼날 삼괴동 충주골 골짜기 산 날망으로 묘가 많다.
- 바탕골 삼괴동 소롱골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북나무골 삼괴동 제피골 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붉은댕이 고개 삼괴동 뫼 소롱골 마을에서 상소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 비룡술둑병(뭇) 삼괴동 구단능선에 자리한 연못이다.
- 뺨마을 삼괴동 1구에 있는 마을로, 삼괴동 일대를 뺨 이라고도 하였다.
- 새내미골 머들령마을 동쪽에 있으며, 머들령 골짜기중 제일 큰 골짜기다.
- 새내미산 삼괴동 새내미 골짜기를 품고 있는 산이다.
- 새들 삼괴동 집건말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 서구지거리 삼괴동에서 구단능선으로가는 길이다.
- 서구지골 삼괴동 장군목 마을에서 대전천을 가로질러 자리한 골짜기이다.
- 섯바탕이들 삼괴동 텃논들 앞의 들이다.
- 성날망터 삼괴동 매모랭이 거리 날망에 자라한 성터다.
- 싸리골 삼괴1동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랫 구지거리 삼괴동 구단능선의 아래쪽 길이다.
- 알미골 삼괴동 공주말 서남쪽의 골짜기이다.
- 알미 또랑(내) 삼괴동 알미골 골짜기에서 뺏 마을로 흐르는 냇물이다.
- 앞산 삼괴동 머물령마을 앞과, 덕산마을 앞에, 산에 이름이 같은 앞산이다.
- 윗서구지 거리 삼괴동 구단능성의 위쪽에 길이다.
- 작은감 골 삼괴동 머물령골짜기 큰골 옆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작은단가미 골 삼괴동 큰단가미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작은 황새울 고개 제피골 삼괴동 송촌마을 앞에 자리한 앞산의 고개이다.
- 제피골 삼괴동의 진선배굴멍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주막거리 마을 삼괴동에서 머물령고개 밑의 정자나무가 있는 작은 마을이다.
- 진골 삼괴1동에서 닭재 고개로 가는 골짜기이다.
- 진선배굴멍 골 삼괴동 황골 골짜기에서 제일 큰 골짜기이다.
- 집건마을 삼괴동 소룡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 자리한 마을이다.
- 쪽바위 삼괴동 머물령 고개정상에 자리한 바위다.
- 찬샘 삼괴동 마달령마을 앞 안산 아래에 자리한 약수이다.
- 치마바위 삼괴동 구단능선에 자리한 하얀 차돌바위로, 이 바위의 하얀 빛이 공주말 마을에 비추면, 그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고 해서 치마바위라고 한다고 한다.
- 침덕바골 삼괴동 바탕골 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침이 많이 있는 골짜기이다.
- 큰갈골 삼괴동 새내미골짜기의 끝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큰단 아가미골 삼괴동 소룡골들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큰먹뱅이 삼괴동 금산당이산 오른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텃논들 삼괴동 덕산마을에 자리한 들이다.
- 통외산 삼괴동 장군목마을 동쪽에 자리한 작은 산이다.

한진오래이들 삼괴동 장군목마을 북쪽에 자리한 들이다.

홍달이들 삼괴동 정문고개에서 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황골 삼괴동과 상소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황골모랭이 삼괴동 황골골짜기 입구에 자리한 모퉁이이다.

황살고개 삼괴동 덕산에서 구도로로 가는 고개이다.

▶ 떡갈봉의 전설(傳說)

삼괴동에서 맨 끝에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를 떡갈봉 이라 부른다. 옛날에 나무를 해서 금산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근근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 식구래야 홀어머니 하나뿐인데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서 드리는 효자였다. 산 밑에 집을 짓고 사는 그들에겐 가난이 몸에 배었지만 자식을 잘 둔 덕분에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고 있었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서 아들이 서른이 넘었지만 장가를 못가서, 어머니는 혼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아들이 불쌍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터에 나가면 뒷마당에 있는 고목나무에 정한 수를 떠놓고 신령님에게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 그날도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조기 두 마리를 매달고 집에 돌아왔다.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뒤에 고운 처녀가 따라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아들도 처녀가 뒤따라오는 것을 모르고 지계를 바치는데 처녀가 숨겨달라고 애원하며, 포졸들이 잡으려온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서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뜰 짚더미 속에 처녀를 감추어 주었다. 그런 연유로 대갓집 처녀가 그 집 며느리가 되었는데 마음씨도 곱고 일도 신랑과 열심히 하면서 무식자인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 명심보감 논어 맹자까지 달통하게 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덜컥 병에 걸려 자리보전하고 누웠다. 병든 시어머니가 찹쌀떡을 먹고 싶다고 하여 며느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찹쌀떡을 사다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나무를 해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참나무에 알 수 없는 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가까이 가보니까 찹쌀떡이 나무에 가득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떡을 뺏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다음날도 참나무에는 찹쌀떡이 주렁주렁 매달려있어 그것을 뺏고 나무를 머리에이 고 집에 오니 꽃가마가 사립문 밖에 있는 것이었다. 역모가 밝혀져 죄를 사하여 새택을 한양으로 모시러 온 것이었다. 신랑과 시어머니와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그때의 찹쌀떡이 먹고 싶어 며느리가 시녀를 시켜 꽃가마를 타고 참나무의 찹쌀떡을

따려고 그 산 봉우리에 가 보았는데 참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찹쌀떡은 없는 것이었다. 아쉽게 발길을 돌렸는데 그때부터 그런 연유로 그 봉우리를 떡이 열렸다고 해서 떡갈봉 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삼괴동이 품은 문화재

“[공주말] 정자나무(동구나무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203-10 공주동[공주말]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신목)



위산제당에서 제사를 마친 후에는 마을회관 앞의 동구나무로 돌아와서 거리제를 지낸다. 6·25 사변에 나무가 고사하여 새로 심어서 현재의 크기로 자랐다. 산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풍장소리가 들리면 부정하지 않은 주민들이 동구나무 앞으로 나온다. 나무 앞에 상을 놓고 돼지머리·시루떡·삼색실과·명태포·막걸리·나물 등을 올린다. 먼저 헌작을 한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구나무소지·동네소지 순으로 올린다. 그런 후 참석한 아주머니들이 소지종이를 나누어

들고 각자의 평안을 위해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마지막으로 제사를 마친 후에는 그 곳에서 음복을 하고, 유사 중 할머니들 2~3명만이 거리제를 지내러 간다. 높이 15m, 지름 2.4m이고, 수령은 50년 정도이다.

“느티나무 1”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256-13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

산내에서 마전방향으로 17번 국도를 따라 진행하면 천주교공원묘지 입구가 나오는데, 입구에 가기 10m 전에 뒷밭사이로 가면 왼쪽 동산 아래에 느티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높이 20m, 지름 3.4m이고, 수령은 110년 정도이다.



“삼괴동 옷소롱골 산제샘 산신제”



소재지 동구 삼괴동 731
분류 민간신앙
시대 미상
수량 1개소

동구 산내동에서 금산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따라 3.8km 정도를 가면, 아랫소롱골 입구 세거리가 나온다. 우측의 아랫소롱골 길로 1.2km 정도

를 가면 싸리골 좌측에 삼괴동 옷소를골 산제샘이 있다. 이곳 마을 인근에서 산쪽으로 산기슭의 계곡과 논두렁이 접하며 가늘게 자리한 냇물이 위쪽산제당에서 아래쪽 마을로 흘러내리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냇물을 '산제당 샘' 이라 부른다. 이 냇물 한쪽의 바위물이 많이 고이는 물웅덩이 샘이 하나 있다. 예전에는 산신제를 지내러 갈 때, 제간 일행들이 이 샘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 갔다. 요즘은이 물이 없어서 손만 씻고 간다고 한다.

“계현산성(鷄峴山城)”

유적명	계현산성(鷄峴山城)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산3-1
시대	삼국
종류	성(보루)



대전에서 금산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삼괴동 송촌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의 뒤쪽으로는 '닭재골' 이라는 좁고 긴 계곡이 있다. 이 '닭재골' 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로 통하는 교통로에 해당하는데, 이 '닭재' 의 북쪽에 있는 해발 325m의 성재산 정상부에 축

조되어 있는 테피식의 석축산성이 계현성이다. 이 산성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전체 둘레는 220m로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한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나 남벽과 북벽은 일부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성벽은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편축식으로 축조되었지만 남벽과 북벽은 내축식(來築式)으로 쌓은 흔적이 있다. 성 내부의 부대시설로는 남벽 안쪽 면에 넓은 평탄면이 남아 있는데, 이 곳에서는 '닭재길' 과 계현성의 동쪽과 서쪽을 한 눈에 감시

→가
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평기와조각이 이 지점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근에 건물지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계현산성(鷄峴山城)은 동구 삼괴동(三塊洞) 닭재 위의 북쪽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220m이다.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있으나 남동쪽의 성벽 일부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밑에서 1.8m까지의 성벽은 안으로 약간씩 오므리며 쌓다가 그 위 1.5m 정도의 성벽은 거의 수직으로 쌓았다.

이곳에서 백제의 것으로 보여 지는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 등이 발견되어 건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안에는 남쪽 성벽 부분에 폭 6~8m의 평평한 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장대로 보이는 시설이 있다. 남쪽벽과 북쪽벽에는 성문터가 보인다.

계현산성은 충청남도 금산군 마전 방향의 추정리산성, 금성산성과 연결되어 있어 이곳에서 넘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동으로는 성치산성, 서로는 소호동산성, 사정성, 보문산성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공주말] 거리제당(거리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공주동[공주말]
시대 미상
종류 해당터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즉 천주교 공동묘지 부근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1980년대 후반에 천주교 공동묘지가 마을 앞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웬지 꺼림칙하여 거리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거리제에는 유사집 할머니만이 참석하여 조용하게 거행한다. 제물로는 삼색실과·명태·시루떡·막걸리 등을 조금씩만 올린다.

현작 후 마을의 안녕을 위해 동네소지 세 장을 올린다. 그런 후에는 제물을 조금씩 떼어놓고 마을로 돌아온다.

“[공주말] 굴너머 허공산제당”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산27-1 공주동[공주말]
시대	미상
종류	산신당(자연제당)

2000년도에 마을 뒤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마을이 왠지 불안했다.

마을 뒤의 고속도로 아래로 난 구멍 뒤에 산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산제를 지낸다.

특히 신목이나 당집을 짓지 않고 허공에 대고 지내는 제사라 하여 '허공산제'라 부른다.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 지내는데, 11~12일 경에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쌀이나 돈으로 추렴을 한다.

주민들이 5집씩 돌아가며 유사를 맡는데, 그 중 깨끗한 할머니 한 분이 제물 장만을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시루떡 3시루·흰무리 1시루·삼색실과·명태 4마리·막걸리·나물 등을 마련한다. 흰무리는 장구떡 산신제에 사용하고, 굴너머 허공산제, 동구나무제, 거리제 등에는 시루떡만을 사용한다.

제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일 아침에 왼새끼로 금줄을 꼬아서 장구떡 산신나무와 마을 앞의 동구나무에 등에 둘러 놓는다.

모든 제사에 앞서 간단하게 허공산제를 지내는데, 이때는 유사집 남자가 제사를 주관한다. 명태·삼색실과·흰무리·막걸리만을 마련하여 나간다.

단잔을 올린 후 산신소지 한 장을 올리고 이어 동네소지 2장을 올린 후 장구떡으로 간다.

“김재만 정려(金在萬 旌閭)”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산 16-25
 시대 조선 고종 27년 (1890)정려비 건립
 종류 정려

동구 삼괴동 소룡(巢龍)마을 입구에 김재만 정려(金在萬 旌閭)가 있다. 김재만(金在萬)은 조선 효종(孝宗)때의 명신(名臣) 김경여(金慶餘)의 6대손으로 김복열(金福烈)의 차남으로 회덕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라서 계부(季父) 김태열(金泰烈)에게 출계(出系)하였

으며,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孝誠이 지극하여 부모의 말을 한번도 어긴 일이 없는 ^모孝子였다. 9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슬퍼하는 애곡(哀哭)은 성인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상례(喪禮)를 마치자 매일 산소를 참배하며 거르는 날이 없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모모든 정성을 다 하였^나다 또한 어머니까지 돌아감에 애모(哀慕)가 외관상(外觀喪)과 다름없이 ^모칭송이 자자하였다. 그의 효심이 온 천하에 퍼짐에 따라 나라에서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정문각(旌門閣)은 세평이며 정려비는 높이 1.3m로 서기 1870년에 세워졌다.

“공주말 디딜방아 뱅이”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공주동[공주말]
 시대 마성
 종류 하당터



디딜방아 훑치기-51회전국민속경연대회 동상수상기념



디딜방아 훑치기 입장 및 시연

정초에 해운을 보아 좋지 않다면 홍역이나 염병 등의 병이 돌때 정월 보름이 되기 이전에 디딜방아 훑치기를 행했다. 주로 점말에서 밤에 남자들이 몰래 방아를 훑쳐왔는데, 뱅이를 위해 가져가는 것이므로 주인도 어쩔 수 없었다. 방아를 둘러내어 매고 나서면서 “방아 훑쳐가네!”라고 외치고 상여소리를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한다. 마을의 본래 동구나무가 섰던 곳에 이르면 방아를 내려서 거꾸로 꽂고 뱅이를 하였다. 방아 다리에 여자 속옷을 씌우고 왼새끼를 꼬아서 흰종이를 끼우고 마을 입구를 가로질러 드리워 둔다. 방아는 정월이 지난 후에 돌려준다. 디딜방아 뱅이는 1946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이제 그 아련한 모습을 몇몇 촌로와 문헌을 통하여 재 조명하는 작업을 하여 풍속이 사라진지 반세기 만에 복원을 하였다. 공주말이라는 지명은 삼괴동이 옛 공주의 말미에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주말 디딜방아 뱅이는 1996년 발굴되어 몇차례의 시연을 거쳐 1999년 제 40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대전광역시 대표로 출전^하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후 공주말에서는 디딜방아 뱅이를 전승시키기 위하여 보존회가 발족되고, 2000년부터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목

신제와 거리제를 지내며 재현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당당히 동상을 수상하여 그 전통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공주말 디딜방아 뱅이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박원상(朴元象)의 묘(墓)”

지정 번호	문화재자료 42호
지정 일	2000년 2월 12일
수량	1기
소재지	대전 동구 대별동 산18-6
시대	조선 인종 7년(1629)



박원상 묘는 대별동 도니골 뒷산, 남부순화도로가 지나는 길옆에 위치한다. 박원상^우고려말의 문신으로 본^관간은 순천이다. 고려시대 공조전서를 역임하였으나 자세한 이력은 전하지 않으며 사육신인 박팽년의 증조인 점으로 보아 고려 말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의 묘

는 후손에 의해 그 직계선조의 묘임이 확인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박원상의 묘는 순천박씨의 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동시에 순천박씨의 대전 입향 시기 및 대전 세거를 밝히는데 있어서도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된다. 순천박씨는 고려 개국공신 영규를 시조로 삼으나 이후의 계보는 실전되어 잘 알 수 없고, 고려말 대재학을 지낸 숙정을 중시조로 삼고 있는데 그가 박원상의 아버지이다. 박원상에게는 수생, 장생, 안생, 이생 등의 아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안생가 중립이 각각 박팽년의 할아버지와 아

버지가 된다. 묘비는 인종7년(1629)에 건립되었으며, 크기는 높이 128m, 폭 62cm, 두께 28cm이다. 비의 전면에는 '고려공조천서 박공원상지묘, 맘향홍씨부' 라고 되어 있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썼다.

“[공주말] 장구덕 산신나무(山神祭)”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331-1 공주동[공주말]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신목)

마을에서 금산쪽으로 국도를 따라 100m 정도 올라가면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동구나무(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나무에서 해마다 산신제를 지낸다. 허공산제를 지낸 후에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마을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위산제당'이라 부른다. 이때는 깨끗한 남자들이 풍장을 올리며 유사들과 함께 간다. 유사집 중 가장 깨끗한 남자가 나서서 제사를 지낸다. 삼색실과 · 술 · 포 · 흰무리떡 한 시루 · 돼지머리 등을 올리고, 석 잔의 술을 올리고 이어 산신소지와 동네소지를 올린다. 간단히 제사를 마친 후에는 제물을 거두어서 마을로 풍장을 치면서 돌아온다. 높이 10m, 지름 3m이고, 수령은 150년 정도이다.



삼괴동 풍경



공주말 전경



공주말 입구



누리길 구간안내



공주말 입구



삼괴동 소룡골 전경



공주말 입구



공주말 전경



덕산말



산내로833-837(소릉골 입구)



하소릉골 승강장



버스승강장



산내로 929길 81-9



소룡골 입구



삼괴동 송촌



삼괴동 송촌



공주말 회관



송촌 진경



천주교 산내공원묘원



삼괴동경노당겸 18통마을회관



삼괴동 보호수입간판



삼괴동 소룡길



삼괴동 보호수



삼괴동 전경



삼괴동 입시경노당



소통골 승강장



소통골

상소동(上所洞)



상소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이지역은 소전(所田)골 물 아래쪽이 되나 서울을 향하면 위쪽이 된다 하여 위 소전 혹은 상소전(上所田)이라 불려오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 (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적리(山積里)를 병합하여 상소리(上所里)라 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할 때 대전직할시에 편입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內洞)이다.

가마바위 상소동의 가마를 닮은 골나미마을의 바위, 상소동마을 맞은편 산에 자리한 커다란 바위가 가마바위다.

골나미들 상소동 골나미골짜기 북쪽 아래 곡남산성 부근에 자리한 들이다.

골랭골 상소동 하루짓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대동 뒷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조선시대 신분 차별이 심할 때 벼슬을 한 양반들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양반골 이라고도 불렀는데 높은 사람들이나 그 후손드령 사는 곳이라 해서 대동, 큰골이라 불렀다 한다.

후곡 골남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선 때 신분이 낮은 서민들이 살았다 한다. 그래서 양반사는 뒷동네라 하여 후곡 뒷골이라 불렀었다.

골남미 곡남산성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상소동에서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의 마을로 곡남 산성 근처에 있다 해서 곡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골남미로 변했다.

산정말 옛날에 산직집이 있었다 하여 산정말 이라 부른다. 산적리 산정촌 산직리 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양반사는 뒷골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촌 뒷골 앞 벌판이 있는 마을이다. 상소동에서 가장 평범한 들로서 편편하다 하여 평촌이라 부르는데 들 가운데 마을이 있다 해서 벌말이라고도 부른다.

백자동 대동 남동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온 마을이 잣나무로 둘러싸여 있다하여 백자동이라 불렀다 한다.

가마바위 상소동에 가마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골나미골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모양이 가마처럼 생겼다 하여 가마바위라고 부른다 한다.

기우재단 상소동 장수바위 옆에 가면 단이 있다. 이 단은 피해가 있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인데 비가 안 오고 농작물에 해가 있을 때는 이 제단에 기우제를 지냈다.

상소전 이조시대에는 지금의 상소동을 하류라 하였다. 현대 양반이 사는 마을을 하소라 하고 서민들이 사는 마을을 상소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소에 사는 양반들의 주류인 은진송씨 들이 마을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한양(漢陽)에 가까운 곳을 상소전(上所田)이라 하게 웃동네 이름이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상소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소전골 상소동과 하소동에 걸쳐있는 사이의 마을을 소전골(所田)이라 부른다. 상소동과 하소동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호라비굴 옛날 장가를 들지 못한 늙은 호라비가 한 여인을 흠모하다 굴속에서 한 많은 인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굴을 호라비 굴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시집가는 색시나 처녀가 이곳을 지나면 매우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어 이곳을 지나길수록 매우 꺼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상소동 느티나무 상소동에 나무의 수령이 400여년 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동구의 구(區)나무로 보호를 받는 나무다. 나무의 높이는 20m이고 둘레가 5.6m 되는 노목으로 마을에서는 매년 명절 때 제사를 지내 주는 나무다.

▶ 골남이 여섯봉 이야기

골남미 뒤에 있는 산을 여섯봉이라 부른다. 옛날에 6형제가 모두 부모에 효도하고 잘 살았으나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므로, 오랑캐와 싸우기 위해 육형제가 싸움터에 나갔다가 그 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늙은 부모들은 가끔 이 산에다가 소리를 높여 아들의 이름을 부르곤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무섭게 치더니 이 산봉에 여섯 개의 봉우리가 솟아올랐다. 하여 사람들은 이 산 봉우리를 여섯 봉 또는 형제봉(兄弟峰)이라고 부르며, 효성이 지극했던 여섯 형제를 가슴에 기린다. (대전지명시 168쪽)

▶ 골내미 장수바위의 전설

동구 상소동 골래미 동북쪽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장수바위라고 부른다.

그 미련한 놈 이제야 죽었겠지. 아니 이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을 죽으라고 그래.

멀쩡하다니, 색시가 찾아와서 살자고 해도 도망 다니는 놈 미련한 놈이지 뭐야.

찾아온 색시가 예뻐 다며! 보지는 못 해지만 그랬다나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산막으로 그를 찾아갔을까? 글썸 말이야 세상에 혼한 것이 총각인데 말이야! 골래미로 들어서면 나무꾼들이 동북쪽에 있는 용팔이네 산막을 ^쳐다 보고는 입방아를 찧는다. 사실 며칠전에 전라도 고산에 산다는 한 색시가 용팔이를 찾아 와서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우격다짐으로 방안에 앉아 있었으나 용팔이가 그 색시가 방에 앉아 있는 동안은 집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전라도로 ^{다시} 도로 내려가고 그날 저녁 때 용팔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산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일곱 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리어 이곳에 이사해왔다. 아버지의 기억이라고는 어렸을 때 한 두 번 본 기억밖에 없었다. 한번은 다섯 살 때라고 생각한다. 토끼가죽으로 옷을 하고 활대를 메고 나타났었으며, 이곳으로 이사오기 며칠 전에는 관가의 감옥에서 보았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진맥진한 얼굴의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홉 살 때 눈을 감았으며, 어머니가 죽을 때 용팔아 너의 아버지는 장수였어. 하는 기억밖에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스물다섯까지 혼자 살았다. 아버지가 장수인 탓인지 용팔이도 기운이 장사였다. 그는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장터에 나가도 다른사람 것 보다 먼저 팔렸다. 그의 나뭇집이 다른 나무 집에 비해서 컸기 때문이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외따로 살아서 친구도 없었다. 그렇게 고적하게 살면서 심심하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잘라 가지고 큰 소나무를 때리며 무예연습을 하는 가 하면 바위를 주먹으로 때려서 갈라놓기도 하는 무예를 닦았었다.

그가 수물 다섯 살 되던 해에 전라도에서 왔다는 색시의 방문을 받게 되었었다. 색시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친과 도련님의 부친께서 혼인약속이 있었는데 도련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서 사방에 사람을 놓아서 수소문 끝에 겨우 알아냈어요. 도련님 인사를 받으세요. 하니까 용팔이는 그길로 집을 나왔다. 먼 산에 앉아서 그 색시가 집을 비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용팔이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장수였다는 것과 전라도 바닷가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도적을 무찌르는 장수였으나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루는 용팔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도 잊어버리고 색시의 방문도 잊어버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서 장터로 나갔다. 나무를 팔고 돌아서려는데 장터가 어수선 했는데 그것은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는 것이다. 용팔이가 집에 들어서자 산막에는 피난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밤이 되자 횃불을 들고 오랑캐들이 산막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용팔이가 바위를 던져서 많은 오랑캐를 쳐 죽여 버리는 도중에 용팔이도 오랑캐가 쏜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는데, 용팔이도 아버지처럼 오랑캐를 무찌르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용팔이가 던진 바위에 손자국이 나 있다 하여 이 바위를 장수바위라고 부른다고 한다. (대전지명지 168쪽 참조)

상소동이 품은 문화재

“상소동 뒷골 느티나무-동구나무제(祭)”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679 (뒷골)
분류	민간신앙
시대	미상
수량	1그루



동구 산내에서 금산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흥초등학교 입구 길이 나온다. 이 학교 입구 길로 들어서서 300m 정도를 가면 마을 복판 중간의 길가에 상소동 뒷골 느티나무가 있다. 이곳의 느티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한해의 농사를 점치기도 한다. 잎이 거의 한꺼번에 돌아나는 해는 풍년이 들고, 잎이 드문드문 따로 피어나는 해에는 흉년이 든

다는 것이다. 제사를 받드는 일행들은 산신제와 용왕제를 마치고 바로 하산하여, 이곳 느티나무로 와서 동구나무제를 올린다. 동구나무제는 예전부터 올려온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 산신제를 복원하면서 이때부터 올리게 된 제사이다.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하면 소지종을 깔고 삼색실과 돼지고기, 흰설기떡, 통명태, 막걸리 등을 차린다. 제순은 산신제와 똑같이 진행한다. 소지는 목신소지, 유사소지, 대주소지 순으로 올린다. 제사를 마치면 소지종이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 놓고, 유사집으로 가서 음복한다. 마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은 때로 이 느티나무에 와서,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고사를 별도로 올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상소동(上所洞) 뒷골 샘-용왕제(龍王祭)”

소재지	동구 상소동 742
분류	민간신앙
시대	삼국시대
수량	1개소

동구 산내에서 금산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흥초등학교 입구 길이 나온다. 이 학교 입구 길로 들어서서 500m 정도를 가면, 뒷골 마을의 마을 뒷산 산제당 옆에, 상소동 뒷골 샘이 있다. 산제당에서의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이곳 아랫샘으로 와서 일명 유허제라고도 칭하는 용왕제를 지낸다. 이곳에서는 불밝이쌀과 술을 올린 뒤, 두손모아 비손하고 유허소지를 올린다. 참석자 중 별도의 소지를 올리고 싶은 사람은 개인소지를 올린다. 순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소지종이에 싸서 제단위에 놓고, 간단히 음복한 후에 제단을 내려와, 바로 동구나무제를 올리기 위해 마을 복판 중간 길가의 느티나무로 모두가 함께 간다.



상소동 아랫샘

“상소동(上所洞) 뒷골 떡갈봉-산신제(山神祭)”

소재지	동구 상소동 742
분류	민간신앙
시대	삼국시대
수량	1개소

동구 산내에서 금산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흥초등학교 입구 길이 나온다. 이 학교 입구 길로 들어서서 500m 정도를 가면, 뒷골 마을의 마을 뒷산에, 상소동 뒷골 떡갈봉이 있다. 이곳 떡갈봉 중턱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엿새날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아랫 샘에서 용왕제를 지내고, 마을 복판 중간의 길가에 자리한 느티나무로 가서 동구나무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떡갈봉 중턱의 가능골 산제당에서 지낸다. 산제당은 높이 150cm, 너비 320cm의 선돌로 되어 있는데, 이 선돌 앞에 높이 46cm, 세로 85cm, 가로 390cm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이곳 산신제는 오래전부터 지내오던 것을 한때 중단했었는데, 중단 이후 마을에 좋지않은 일들이 자주 생겨 1990년대 초반부터 무당이 주관하여 제를 시작하였다. 그후 무당이 유사를 선출해 주었으나, 무당이 이사를 간 뒤에도 마을 아주머니들이 다른 곳에 가서 정해 온다. 유사는 본인뿐아니라 가족의 운이 닿아도 정해질 수 있다. 제비는 마을기금에서 20만원을 책정하여 충당한다. 제기는 따로 마련된 것으로 사용하고 나서 다시 보관해 둔다. 제물은 제사 전날 장에 나가 돼지머리, 삼색실과, 흰설기, 통명태, 돼지고기 두근, 막걸리 등을 마련해 온다. 산신제 당일 오후 3~4시경에 아주머니들이 제물을 챙겨 산제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차린다. 제순은 간단한 비손을 드린 후에 산신소지, 유사소지, 대주소지를 올린다. 대주소지는 마을의 위부터 순서대로 올리는데, 참석한 사람은 본인의 소지를 직접 올린다. 이곳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아랫 샘에서의 용왕제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일행 모두가 내려간다.

“큰골 느티나무(동구나무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1003 대동(큰골)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신목)

경로당 뒤쪽의 느티나무 두 그루에서 양력 5월 8일에 동구나무제를 지낸다. 이 동구나무의 잎이 봄에 위에서부터 잘 피는지를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두 나무는 약 470cm의 거리를 두고 두 그루가 서있는데, 왼쪽의 나무는 많이 상하였다. 오른쪽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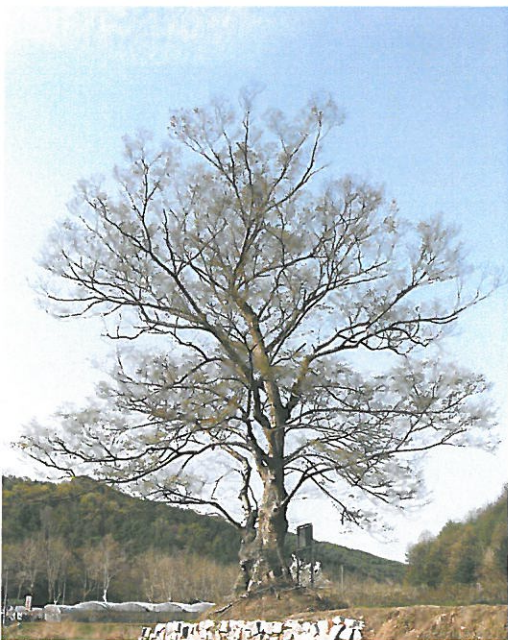


상소동 뒷골 떡갈봉 산신제 추정터

느티나무 앞에는 높이 30cm, 가로 208cm, 세로 110cm의 시멘트 제단이 놓여있다. 이 제사는 1960년대 경에 마을에 불길한 일이 빈번하여 동구나무를 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어버이날 마을 잔치를 겸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제관을 선출하지는 않는다. 마을 행사이므로 마을기금으로 제물을 마련한다. 삼색실과 ·

포 · 술 · 흰설기 등을 간소하게 마련하여 올린다. 낮에 제사를 지내는데, 할머니 중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잔을 올리고 비손한다. 간단히 비손한 후 나무소지와 대동소지를 올린다. 그러나 주민수가 줄면서 앞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높이 20m, 지름 5m이고, 수령은 350년 정도이다.

“상소동 느티나무”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26-2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

17번 국도를 따라 산내에서 마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제1마달교와 제1상소교를 지나 100m 정도 더 가면 우측의 논 가운데에 느티나무 1그루가 위치하고 있다. 높이 18m, 지름 2.5m이고, 수령은 180년 정도이다.

상소동 풍경



상소동 뒷골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보광노인병원



산흥초등학교



오토캠핑장



상소동 오토캠핑장 부근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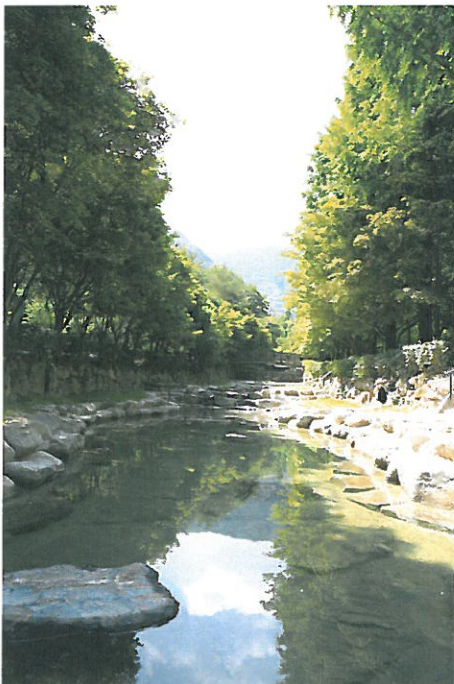
상소동 오토크램핑장



상소동 오토크램핑장



상소동산림욕장



상소동산림욕장 야외수영장



상소동산림욕장



상소동산림욕장 돌탑



상소동산림욕장



상소동산림욕장



상소동 전경



큰골, 뒷골, 벌말 전경



상소동 큰골 전경



상소동 전경



상소동 상정말

하소동(下所洞)



하소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시대에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했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顯宗)9년(166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이 지역은 소전골 물 위쪽이지만 서울을 향하고 보면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 소전 골 또는 하소전(下所田)이라 불려오던 지역이다. 소전(上所田)이라 불려오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32년(1895)에는 회덕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적리(山積里)를 병합하여 상소리(上所里)라 하고 대전군 산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시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할 때 대전직할시에 편입 동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산내동(山内洞)이다.

하목정(下木亭) 하목정은 시루봉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길가에는 지금도 해묵은 나무가 있는데 금산 시장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 쉬어가는 나무 아래라 하여 하목정(下木亭)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가랭이골 하소동 안산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가랑이재 하소동 먹티마을에서 복수면으로 가는 고개이다.

가막골 하소동 제비실날망 위로 돌아가는 골짜기이다.

가재골 하소동 먹티마을 오른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가운데골 하소동 참상골골짜기 뒤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가정(가목적마을) 하소동 시루봉산 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갈골마을 하소동 가정마을 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감나무골 하소동 갈골마을에 자리한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다.

건물마을 하소동 한터울 마을 밑에 자리한 마을이다.

국골 하소동 북재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귀골날망마루 하소동 작은 귀골골짜기 뒤쪽에 자리한 산마루이다.

귀미실마을 하소동 시루봉마을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귀술골 하소동 북젓말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기생기린산 하소동 가정마을로 들어가는 왼쪽에 자리한 산이다.

꽃당골 하소동 새터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꽃산 하소동 아지골 골짜기 옆에 자리한 산이다.

평골 하소동 절골마을 옆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당골 하소동 새터마을 옆과, 북재마을 뒤, 시루봉마을 맞은 편, 이 세 골짜기의 이름이 모두 같은 당골이며, 북재마을 뒤에 자리한 당골 골짜기에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

도라지양달마을 하소동 절골마을에 자리한 양지바른 마을이다.

돌무랭이내 하소동 시루봉마을의 중심을 타고 흐르는 내이다.

돌무랭이들 하소동 왜골날곡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들이다.

뒤골짜골 하소동 황토골 골짜기 뒤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과**
드무골 하소동 먹티마을^과 먹티고개 사이에 자리한 큰 골짜기이다.
- 태골** 하소동 가정리마을 앞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먹티교(다리)** 하소동 가정리마을 들어가는 곳에 자리한 작은 다리이다.
- 뒷날마루** 하소동 새터마을 앞에 자리한 작은 동산으로, 묘가 많다.
- 바람골** 하소동 가운데골 골짜기 옆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벚골** 하소동 태봉산과 지봉산 사이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새박골** 하소동 만인산(萬口山)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새밭골** 하소동 만인산휴게소 앞의 골짜기이다.
- 새터마을** 하소동 서쪽과, 북재말 마을 남쪽의 새로 생긴 마을이름이 같은 새터이다.
- 시루봉마을** 하소동 냇가 건너에 자리한 마을이다.
- 시루봉다리** 하소동 새터 마을과 시루봉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 아래대골** 하소동 옷대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래두목골** 하소동 먹티마을 좌측으로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래비시랑골** 하소동 차돌뱅이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래바탕골** 하소동 옷바탕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랫배골** 하소동 윗배골 골짜기 서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래승저골** 하소동 옷승저골 골짜기 서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래황터골** 하소동 옷대성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아랫수막골** 하소동 집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 어장골** 하소동 한톨골 골짜기 좌측에 자리한 골짜기로, 어린아이에 묘가 많다.
- 앞또랭내** 하소동 가정리마을 앞을 지나는 내이다.
- 옷대골** 하소동 옷대성골 골짜기와 마주한 북쪽면 골짜기이다.
- 옷드무골** 하소동 드무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옷바탕골** 하소동 피울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옷배골** 하소동쪽 대전천의 우측에 접해있는 골짜기이다.
- 옷승저골** 하소동 만인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옷피우골** 하소동 가정리마을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 옷황터골** 하소동 아래 황터골 골짜기 서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웃수막골 하소동 집골짜기 골짜기 위쪽에 골짜기이다.

위두목골 하소동 먹티마을 앞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윗수막골마을 하소동 집골짜기 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작은골명골 하소동에서 가정마을 쪽으로 나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귀골 하소동 당골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작은달골 하소동 큰 당골골짜기 왼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작은세월골 하소동 큰 세월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작은음달골 하소동 한톨골 골짜기 좌측에 하리산 골짜기이다.

작은절골 하소동 공동묘지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제비실날망마루 하소동 가정마을 뒷산의 산마루이다.

집골짜기 하소동 가재골 골짜기 부근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집뒷골 하소동 가재골 골짜기 서북쪽에 자리한 큰 골짜기이다.

차돌뱅이골 하소동 가재골 골짜기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큰골 하소동 절골마을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큰굴명(평전) 사소동 하소리마을 앞의 평평한 곳이다.

큰귀골 하소동 작은당골 골짜기 앞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큰세월골 하소동 큰당재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태모신날산 하소동 자봉산(紫鳳山)의 봉우리로, 태조 이성계의 태실이 있다.

피울골 하소동 웃피울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열두동네(하소리마을) 하소동에서 금산쪽으로 가는 첫 번째 마을로, 열두마을이 모여사는 곳이다.

한터울마을 하소동 귀미실마을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한톨골 하소동 새말마을 동편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회덕골명이골 하소동 한톨골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먹티 먹티는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만해도 무연탄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연탄질이 좋지 않아 개발이 중단되었다. 가정이 남서쪽 고개 목에 있는 마을이다. 산과 마을색이 검다하여 먹티 라하고 먹티 고개가 목에 찻다 하여 **목티** 라고도 부른다.

북재 옛날에 북성이란 성이 있었다 한다. 북재, 북성, 북성촌 이라고도 부른다. 절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시루봉 마을 뒷산 모양이 떡 시루 같다 해서 시루봉 이라 부른다. 새터 남쪽에 있는 산이다. 시루봉 아래 마을이 있는데 역시 산의 이름을 따서 시루봉 이라 부른다. 산에 석성으로 성 주위가 약 90m가 되는 석성이 있는

데 이를 중봉산성이라고 부른다.

절골 이즈때 이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다.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어졌지만 조선시대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골이라 부른다. 아래 소전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래소전골 아래 소전골은 절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전골 물 위쪽에 있었던 마을인데 상소리라고 불렀다. 아래소전골에는 양반이 사는 마을이었고 위소전골은 서민이 살고 있었다. 서민이 사는 마을을 이소전골이라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하여 아래소전골이라 부르자고 양반들이 억지를 쓰는 바람에 한양에 가까운 자기네 마을 아래 소전골을 위소전골로 지금까지 아래 위 소전골 이름이 바뀌었다 한다.

자봉산 동구 하소동과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와 경계에 있는 산을 자봉산(紫鳳山)이라 부른다. 높이는 580m 되는 높은 산으로 산 모양이 자봉과 같이 수려하다 하여 자봉산이라고 부른다 한다.

대전천(大田川) 동구 하소동 만인산 봉수래미골에서 발원하여 대전의 중심부를 거쳐서 서북쪽에서 버드내(유등천)와 갑천을 합하여 금강으로 들어가는 냇물을 대전천 또는 옥계천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이태조의 태복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므로 옥계천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대전천이라고 한다.

만인산(萬口山) 동구 하소동과 금산군 복수면, 추부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산을 만인산이라고 부른다. 높이는 538m나 되는 높은 산으로 산이 높고 가파른 산이다. 지금 그곳에는 푸른 학습원과 만인산 휴게소 등이 위치해 있으며 산 정상에는 만인루가 설치되어 있고, 이성계의 태를 묻었던 태실이 있는 산이다. 가을에 낙엽송의 붉은 잎이 지는 해의 역광을 받아 찬란하게, 황홀하게 빛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소동이 품은 문화재

“대전천 발원제”

| 대전천 발원지 봉수래미골의 유래

봉수래미골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만인산 동쪽(만인산휴게소뒤200m지점)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23개 법정동과 19개의 하천이 흐르는 지방2급 하천으로 대전시민의 애환과 향수를 담고 있는 대전천의 발원지이다.



대전천 발원지 표시석

구전에 의하면 만인산에서 달맞이나 큰 제향이 있을 때 정상으로 봉화를 올리던 골짜기라 하여 봉수내미골 이라고 불리고 이후에 봉수래미골 이라 불리어 지고 있다. 만인산 정상에는 지금도 전통양식의 봉화자리인 봉수대터가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 한성에서 오는 봉화신호를 받아 전라도 방향으로 소식을 전하고, 동쪽 식장산 방향 2km지점 정기봉 정상의 봉수대에는 전라도방향으로 소식을 전하였다고 한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 처음으로 산내면 대전리라는 행정지명으로 등장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대전은 봉수래미골에서 시작한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구와 중구로 나누기도 하였다.



대전천은 대전원도심의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대전을 태동시킨 의미가 큰 하천으로 대전의 젖줄 역할을 한 천이다.

대전천 발원지 봉수래미 골을 가꾸고 다듬는 행사를 만인산 환경지킴이(회장 김인승)에서 하면서 그곳에서 매년 대전천 발원제를 지내오고 있다.



“柯木停 소나무(거리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425 가목정
시대 현대
종류 신목



음력 정월 열 나흘날과 백중에 마을 앞 큰 도로와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곳에서 거리제를 지냈다. 본래 큰 소나무가 있었으나 고사여 1990년 초엽에 현재의 나무를 심었다. 예전에는 설을 쇠고 거리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사흘 전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한다. 제사를 지내려면 먼저 제사를 주관할 유사를 운을 보아 선출한다. 장은 유사가 마전장으로 나가 해오는데, 10리나 되는 먼길이였다. 삼색실과·명태포·흰설기·고사리·콩나물 등을 올린다. 걸립을 하여 제비를 마련했으나, 지금은 반장이 걷으

러 다닌다. 부정한 집과 교인은 제외한다. 당일 아침 6~7시경이 되면 거리제를 지내러 나간다. 반장이 징을 쳐서 제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온다.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 후 대동소지·아이소지·군인소지·노인소지·대주소지를 올린다. 아이소지는 흥역이나 전염병이 걸리지 말라고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유사집으로 가서 음복을 한다.

“실봉 느티나무(거리제)”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실봉 737-6
 시대 미상
 종류 보호수(신목)

북정말 동구나무에서 거리제를 마치고 곧 실봉 마을의 동구나무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 거리제를 지낸다. 나무 앞에 짚을 깔고 돼지머리·삼색실과·명태포·흰설기·세 가지 나물·삼탕(두부·명태·멸치) 등을 올린다. 진설이 끝나면 유사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축문은 읽지 않고 목신소지·마을소지·유사소지 순으로 소지만을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물이 담긴 큰 그릇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 넣어 휘저은 후 사방으로 뿌린다. 이 느티나무는 수고 18m, () 2.2m이고, 수령은 120년 정도이다.



하소동 풍경



소동 전경



푸른학습원



푸른학습원 입구



푸른학습원 전경



대전시립노인병원



만인산 휴게소



만인산 휴게소



만인산 야외공연장



만인산 자연휴양림



만인산호 전경



만인산호 풍경



산내로 273번길 135



태실



하소동, 갈골 전경



하소동, 먹티 전경



하소동 산업단지



하소동 산업단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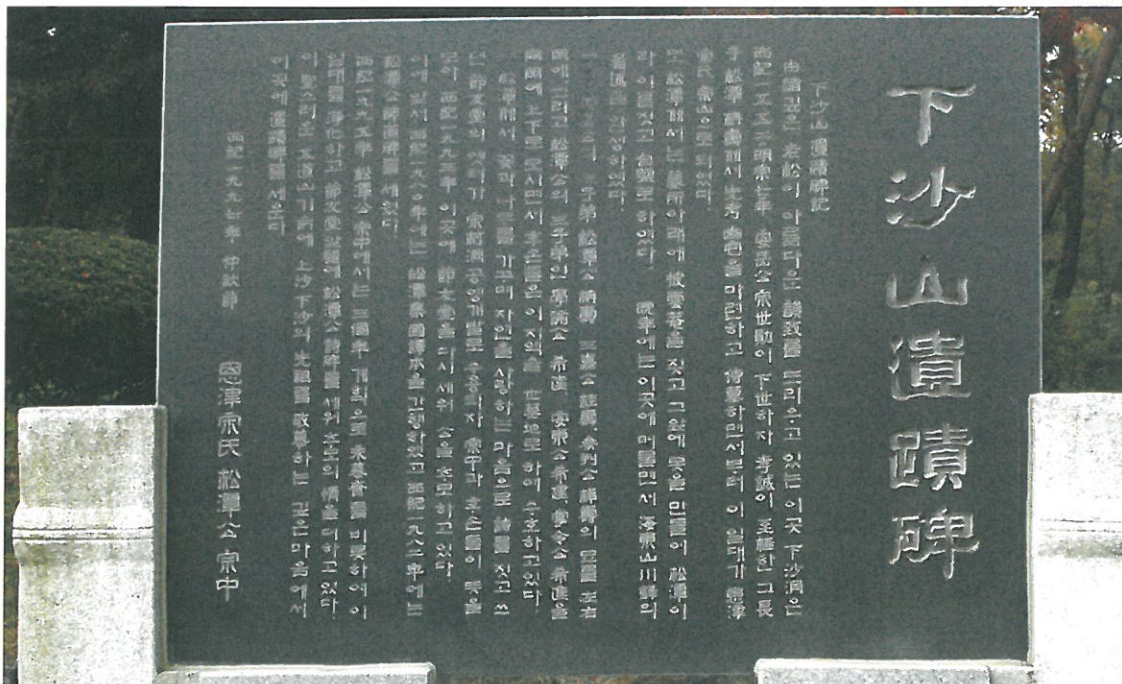
하소동 시루동 전경



하소동 커피



노인회관



하소유적비



만인루



목티(먹티) 고개입구



하소동 먹티고개



하소동 먹티입구



산내늪시터



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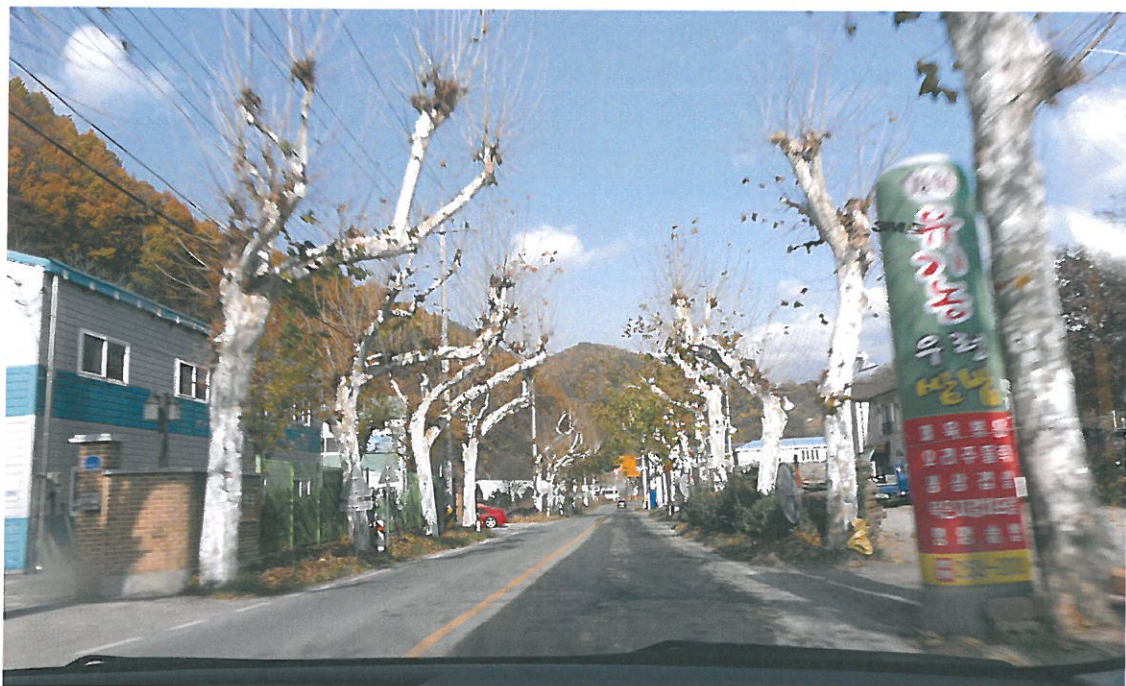
신촌



하소동 전경



갈골



하소동 길



하소동 도라지양달 절골



하소동 마을회관



하소동성심원 전경



하소동, 시루동 전경



하소동 전경



하소동 전경

동구문화총서 17호

산내골 자연마을

인 쇄 | 2019년 12월 20일
발 행 | 2019년 12월 30일
발 행 인 | 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자료조사위원장 | 어경숙 환경사진가협회 홍보분과 위원장
자료조사위원 | 신정규 사진작가

기 획 | 이원구
편 성 | 김명옥
정 리 | 권미주

대전동구문화원

주 소 | (우34645)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20
전화번호 | (042)623-7211
팩시밀리 | (042)623-7221
전자우편 | dgc2135@hanmail.net
홈페이지 | www.dgcc.or.kr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이든북
등록번호 | 제2001-000003호
주 소 | (우34625)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43-1 (의지빌딩) 201호
전화번호 | (042)222-2536
팩시밀리 | (042)222-2530
전자우편 | eden-book@daum.net

김명옥
환경사진가협회
홍보분과 위원장
김명옥